

SPECIAL CONVERGENCE TAL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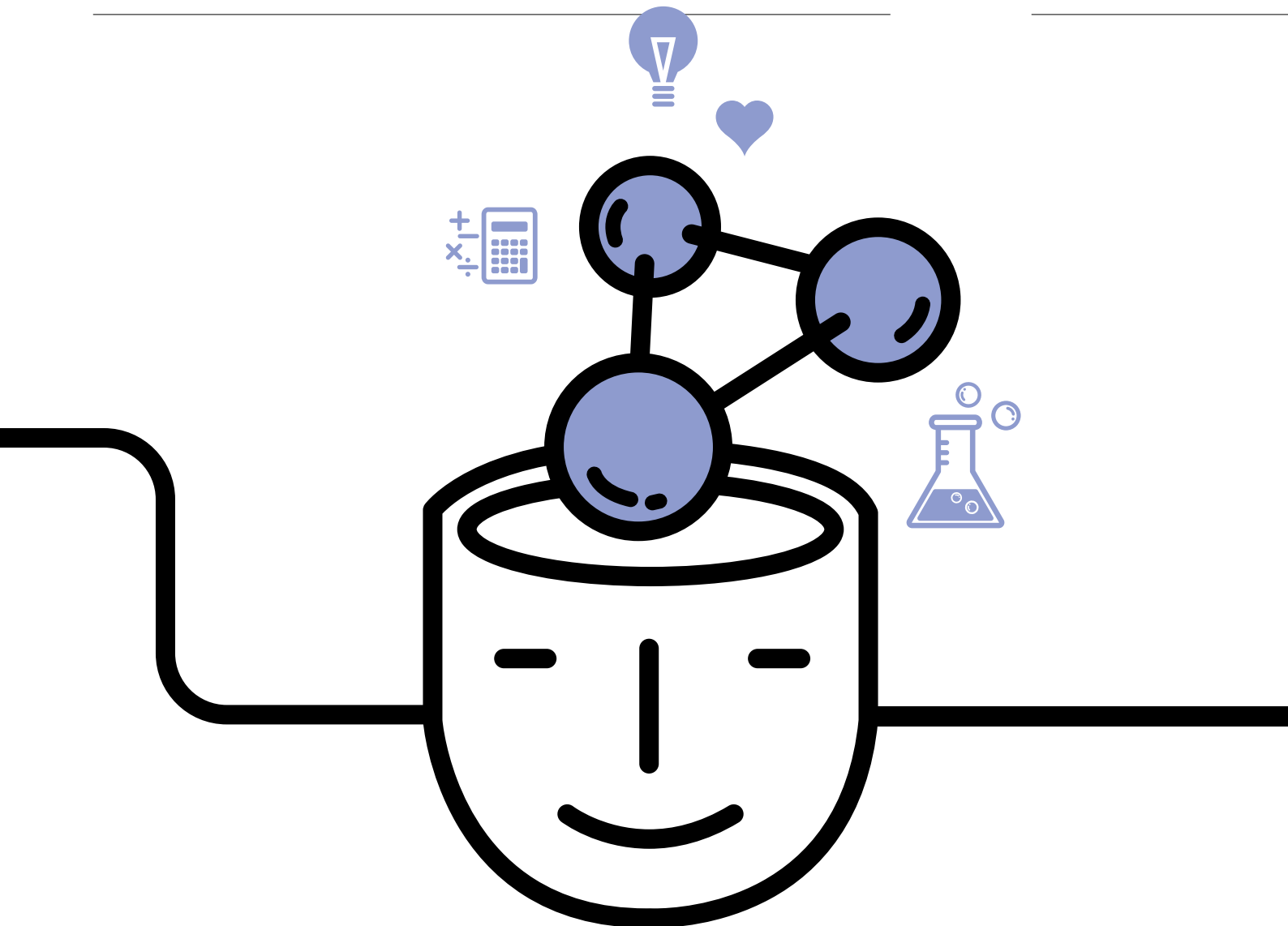
KIPA ACTIVITY / 청소년 발명 축제, 그 새로운 장(場) '2013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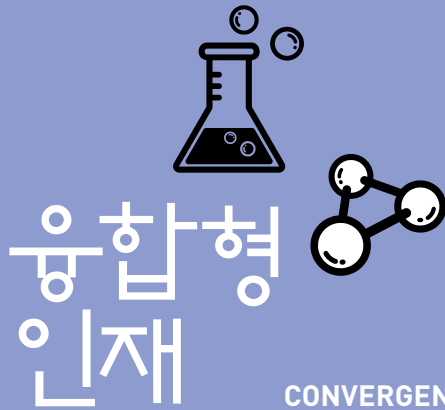
COLUMN / 도전정신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에 주력해야 - 이민화 교수

INTERVIEW / 융합, 신(新)발견 아닌 엉뚱한 재(再)조립 - 이원복 교수

07
08

VOL.441
2013
JULY
AUGUST





CONVERGENCE TALENT

세계를 휩쓸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융합형 인재'라는 점이다.

컴퓨터공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마크 저커버그,
철학과 공학을 함께 공부한 스티브 잡스,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말하는 독서광 빌 게이츠까지.

한 우물만 깊게 파는 것보다는
여러 우물을 깊고 넓게 파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생각과 가능성이 창의적으로 얽혀진 융합의 세계이다.
우리는 과학, 기술, 사회, 문화, 예술 등 삶의
다양한 교차점에서 세상을 창의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원하고 있다.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미래를 여는 인재,
인문학적 감수성과 통찰력을 과학적 사고로 표현해낼 수 있는 인재,
창의적 융합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인재.
지금 이 시대가 바라는 인재상이다.

세상을 밝히는 발명과 특허 이야기

발명특허

2013
JULY
AUGUST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 2013년 8월 5일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발행인 | 김광림 편집·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 박선민(02,3459,2727) www.kipa.org

편집디자인·제작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co.kr



contents

SPECIAL	CONVERGENCE TALENT	
KIPA ACTIVITY	청소년 발명 축제, 그 새로운 장(場) '2013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04
COLUMN	도전정신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에 주력해야 - 이민화 교수	10
INTERVIEW	융합, 신(新)발견 아닌 영동한 재(再)조립 - 이원복 교수	14
IP FOCUS	① 글로벌 특허전쟁시대의 핵심특허 창출 방안	18
	②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 그 새로운 가치와 유의점	22
	③ 항상 새로워지는 창조 조직을 위한 지식재산 매뉴얼	26
	④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결코 이길 수 없다	30
	⑤ 글로벌 동향	34
발명家 사람들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다	38
지식 더하기, 기술 나누기	로컬 시장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 (주)미르기술	42
트렌드 리포트	소비문화의 뜨거운 화두,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46
생활 속 발명이야기	유의미함에 대한 생각 "모든 것이 특별하다"	48
IDEA 공작소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 놀이터	50
IP NEWS		54
KIPA NEWS		58
특허 Q&A		68



청소년 발명 축제, 그 새로운 장(場)

학생다운 시선으로 뜰뜰 뭉치다



2013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꿈’과 ‘끼’. 최근 학교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다. 과거 우리의 교육 현장이 미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최근의 교육은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을 재조립하며 자신만의 지식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열된 지식보다 전에 없던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 아마 그것에 가장 근접한 형태는 ‘발명’일 것이다. 지난 7월 25일, 코엑스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발명가들의 축제가 한바탕 마련됐다. 미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무릎을 치게 할 정도로 번뜩이고 재치있었다.



김광림 회장 “창의 청소년, 대한민국의 미래”

지난 7월 25일, 코엑스 전시장에서는 청소년 발명을 도모하는 <2013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개막했다. 'Think CHANGE? Make CHANCE!' 라는 슬로건 아래 7월 29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26회의 역사를 지닌 축제답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재치로 똘똘 뭉친 청소년들의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오른 총 170여 점의 출품작과 함께 막이 오른 이번 페스티벌은 우수 학생 발명품을 전시하는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와 창의력 경진대회인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그리고 다양한 부대행사와 발명교육 학술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사람이다

머릿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경제활동으로
승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지식을
재산으로 만드는
주체가 바로
인간



테이프 커팅과 함께 출발한 개막식에는 사회 각 분야의 내빈들이 방문해 축제의 장을 기념했다.

전시회 4층에서는 개막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시상식’이 개최됐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WIPO 사무총장상, 특별상 시상과 더불어 미래부-교과부 장관상, 교원전 시상 등 약 300여 명의 학생에게 발명상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김영민 특허청장은 “발명은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것에 하나를 더하고 빼는 것도 발명이다. 하나를 더하고 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발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줬다.

이어 김영민 특허청장은 “작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하나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원도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발전한 것은 여러분과 같이 상상력과 창의성에 도전정신과 지식재산 마인드를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들의 발명 의지를 북돋았다.

김광림 회장은 시상식 개최사를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은 사람이다. 머릿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경제활동으로 승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지식을 재산으로 만드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은 지식재산 인재이며 그 중에서도 풍부한 창의력을 가진 학생과 청소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역량”이라고 언급했다.



01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한국발명진흥회는 ‘학생발명전시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창의력을 가진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것으로 ‘미래로 가는 길안내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명, 알고 보면 생활이에요

이번 대회에는 학생들의 시선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는데 ‘문단 속이 간편한 창문’과 ‘편심구멍을 이용한 하중분산 대형 경첩’, ‘스탬프 기능이 추가된 수정테이프’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이 발명의 소재가 됐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임연재(서울 보성고, 3년) 학생의 가변저항식 키보드는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가변저항식 키보드는 이름 그대로 키보드의 기능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특히 게임을 많이 하는 요즘 세대에게 매우 유용하다.

실제로 자신이 게임을 하다가 일반 PC 키보드에서 불편함을 느껴 발명을 시도하게 됐다는 임연재 학생은 모든 키에 가변저항을 적용해 조작 키의 수를 줄이고 간편하게 다중조작 할 수 있도록 설정해 게임에 사용되는 키 개수를 현저히 줄였다. 임연재 학생은 “이번 상은 내겐 과분하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대한민국과 세계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더욱 본격적으로 발명품 개발에 힘 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WIPO 사무총장상을 수상한 이예림(서울 선일여고, 1년) 학생은 플러그와 콘센트를 적은 힘으로 쉽게 탈착할 수 있는 전원연결장치를 발명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멀티콘센트는

01. 김영민 특허청장(왼쪽)과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오른쪽)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은 권주예(경북 안동 송현초 3년) 학생과 기념촬영을 했다.

02 '2013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래밍 한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플러그와의 탈착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로 인해 콘센트가 자주 고장나기도 하며 잘 못 만질 경우 감전의 위험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예림 학생은 플러그 전극단자가 플러그 몸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외부노출을 최소화시킴으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또한 비교적 적은 힘으로 플러그와 콘센트 탈착이 가능케 했으며 절전에도 효과적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수상한 이예림 학생은 “수상을 하게 돼 기분이 매우 좋다. 앞으로 또래 많은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만들어서 대회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친구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윤종용 위원장 “실패 두려워 말고 상상으로 도전하길”

이날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개최식을 찾은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창조경제 시점에 미래세계에 대한 창의성과 상상력, 발명 의지를 키워주는 큰 행사가 개최돼 의미가 있다”며 “창의력이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참여 학생들에게 창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의력이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

이어 윤 위원장은 “창의성은 호기심과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호기심은 많은 상상을 갖게 해 꿈을 품게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을 하게 된다”며 “현재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 한 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에 있으며 이곳에 모인 학생들 모두가 창의인재다. 앞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상상으로 도전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래 글로벌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시를 관람한 황지현(대전 외삼중, 3년) 학생은 “또래 친구들의 발명품을 보면서,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부분이 해결되는 것에 무릎을 치게 됐다. 직접 와서 보니 매우 새롭고 신선한 전시다. 앞으로 발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녀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신혜정(대전 유성구, 42세) 씨는 “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기특하더라.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속에서 관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의 시선으로 만들어낸 학생다운 발명품이 많이 보여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발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아이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올해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10년 전과 비교해 출품건수가 약 140% 증가했으며 참여 학교도 1,250여 개교로 120% 늘어나 전국 학생들의 대표 발명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발명에 더욱 친숙해지고 국민 모두의 아이디어가 발명으로 연결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명특허

새로운 융합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스마트와 소셜 혁명은 인류를 새로운 형태의 융합된 진화로 이끌어 가고 있다. 스마트 폰과 결합한 평범한 회사원은 과거 슈퍼맨이 가졌던 초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백과사전 전체의 지식을 1분 이내에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동시에 전 세계의 뉴스를 접할 수 있지 않은가. 새로운 세상을 이끌 새로운 인재를 양성할 새로운 교육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도전정신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에 주력해야

이제는 창의적 기술인재 시대

1분 안에 검색이 가능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붓는 현재의 교육 체계가 재고될 시점이 왔다. 축적된 인류의 지식을 스마트 폰으로 활용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창조적 역량을 창출할 인재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정답 교육에서 문제발굴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재미와 창조가 교육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바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형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과연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상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는 그저 미국, 일본이 간 길을 열심히 따라가면 되었다. 창조성 있는 괴짜보다는 성실한 인재가 더 대우를 받았다. 우리는 정답을 잘 맞추는 모범적인 학생들을 길러왔다. 그러나 이제는 창조성에 기반한 모험적인 인재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는 대기업 주도의 효율 경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효율 경제의 성장 한계가 명백해지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조영재가 이끌어 간다.





창조영재는 지식재산권과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다. 국민 소득 2만 불을 넘는 선진국 진입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전 세계 통계에 바탕을 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연구 결과는 4만 불대 선진국 진입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과 창조성이라는 확고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중진국 진입 방정식과 선진국 진입 방정식은 완전히 다르기에 우리가 육성할 인재도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는 학습, 끊임없이 도전하라

한국의 학생들은 정답을 신봉한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정답 신봉의 신화는 혁신을 죽이고 있다. 안정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창조적 도전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 대안을 학생들에게서 찾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다. 정답은 없고, 해답은 여러 개 있다는 가정 하에 각기 다른 창조적 문제해결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 실패를 학습으로 인식하고 끊임없는 재도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창조성은 융합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특이점 대학의 프로그램 핵심도 융합 기술과 기업가 정신임을 참고하자. 그러나 특이점 대학에서 추구하는 융합 기술 기반의 창조적 기술이 사업화 되는 데는 '특허'라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창조성 발현의 표상이 바로 특허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세계 경제는 기술 중심에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기술은 메타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의 핵심 차별화 역량에서 벗어나고 있다. 세계의 첨단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가 줄고 기술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반면에 특허 거래 규모는 2010년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첨단 기업 가치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특허 경쟁력을 갖는 인재 육성이 목표의 한 축이 된 이유이다.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다

정답은 없고,
해답은 여러 개 있다는
가정 하에 각기 다른
창조적 문제해결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



21세기 한국교육의 대안 '창조성 중심 교육'

'기업가 정신'은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기회가 오면 곧바로 '도전하는 정신'이다. 그러나 도전이 모두 성공하지는 않는다. 실패하더라도 학습을 통하여 재도전을 하고, 결국 성공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미국의 성공한 벤처의 평균 실패 횟수가 1.8회라는 통계의 의미는 바로 실패를 지원하는 국가가 혁신 경제의 리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된 이유이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의 바탕에는 미래 사회의 가치 이동을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특이점 대학이 제공하지 않는 미래학과 인문학도 교육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제는 '왜'라는 가치가 '어떻게'라는 수단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정리하면 융합기술, 미래인문학, 특히, 기업가 정신 과목을 기본 교과목으로 제공하고, 실제의 문제 해결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이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 창조성은 재미(FUN)가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한국의 교육에서는 재미가 사라졌다. 틀리지 않는 정답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창조성을 말살시키고 있다.

이제는 가르치는 교육에서 깨우치는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강의는 최대한 줄이고 집단 토론을 통한 창조성 학습이 필요하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른 시각의 두 가지 강의에서 현황과 문제를 제시하게 하고, 강의 이후 각자 팀을 이루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집단 토론을 하게 해보자. 영재에 대한 현재의 편견 중 하나가 영재들은 협동심이 약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해결 과정은 개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집단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상황에 맞추어 문제 발굴 및 해결 과정을 소집단의 창조성과 인터넷 항해를 통한 열린 사고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집단 토론을 통한 창조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 다음날 아침에는 전원이 발표를 하고 상호 평가를 하는(PEER REVIEW) 방식을 도입하자. 상호 평가는 그 자체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했는가에 대한 학습 과정이다. 이를 통하여 각자 발표 역량도 배가 시키고자 한 것이다. 신사업의 설명을 요령 있게 하는 것은 기업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인 것이다. 더 나아가 생각의 범위가 개인의 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새로운 창조성의 이론이다. 생각을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하는 네트워크 지능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난 3년간 카이스트에서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실험을 했고, 그 결과는 1인당 특허가 연간 4건이고 수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발명특허



글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 수출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KAIST 초빙교수
유라시안네트워크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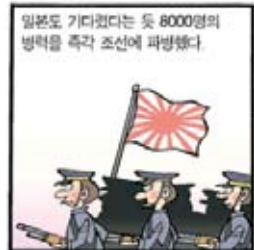
융합, 신(新)발견 아닌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저자 겸 덕성여대 석좌교수

엉뚱한 재(再)조립



언제부터인가 ‘융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담론이 됐다. 융합이 거론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구분 짓기 어렵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된 시기는 거의 분명하다. 미국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전에 없던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융합’과 ‘창조’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처음이 그렇듯 당사가 융합에 대한 다소 거친 담론의 시작점이었다면, 지금은 융합형 인재에 대한 보다 본질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21세기 한국사회, 지금 우리의 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01. 이원복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중 한 사람이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그는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 디플롬을 취득했으며, 역사·문화·경제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해설한 다수의 만화책을 출간했다.

‘잡학’을 갈망하던 소년

열두 살부터 만화를 그리던 소년. 전쟁통에서 나고 자란 소년은 당시의 황폐한 거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려내기 시작했다. 빈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 소년이 어느 날 우연찮게 접한 한 권의 만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시절에 출판물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구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만화 한 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신세계였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본 만화가 외국 것을 불법 복제한 것이어서 매우 조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경험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완전히 몰입했죠.”

소년 이원복이 만화를 통해 발견한 것은 ‘즐거움’이었다. 지금에 비하면 조악한 그림의 다소 영성한 스토리가 전부였지만, 그는 만화를 통해 점차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방직후 가난한 집의 칠형제 중 막내로 자란 그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오직 그림뿐이었던 것이다. 장난감이 없으니 스스로 놀거리를 만들어야 했고 놀거리를 만들려면 끝없이 상상해야 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잡학(雜學) 수집의 근원이 되어 지금의 이원복 교수를 만들었다.

“네 컷짜리 만화의 작은 프레임은 제게 호기심을 채워주는 창(窓)이었어요. 다양한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아무것도 아닌 지식과 경험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을 살다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 창(窓)은 1975년 독일 유학길에 오르면서 더욱 커졌죠. <만나라 이웃나라>를 집필할 수 있던 계기였으니까요. 가난한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자 싶었고, 당시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럽사회를 소개하면 어떨까 싶었죠. 반도국가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9개가 넘는 국경과 맞닿은 독일의 첫 느낌도 충격적이었으니까요.”

목적을 갖고
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독서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지식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02

02. 시대를 넘어 세대를 이어 읽고 또 읽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먼나라 이웃나라」 03. 이원복 교수는 “패션과 공학, 생명공학과 물리, 색채와 건축 등 전혀 엉뚱해 보이는 분야를 창의적으로 조합해야 스티브 잡스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04. 만화가는 상상력과 창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05. 그는 책을 주로 활용한다. 때문에 그의 서재에는 자료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책과 게을러서 버리지 않는 책이 전부이다.

‘왜’ 라는 물음에 답이 있다

고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그였지만 독일 유학길에서 전공을 디자인으로 바꿀 정도로, 그림이 그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컸다. 낯선 나라에서, 그는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을 그림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왜’라는 질문과 함께.

“해외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깊이 느낀 게 있다면,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음’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그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외국에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왜’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모든 상황에 적용했어요. 그로부터 점차 문화의 상대성도 깊이 고민할 수 있었죠.”

30년 전 깨달은 그의 생각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질문이다. 국가의 경계가 흐려지고 다양한 문화가 넘나들수록 ‘왜’라는 물음은 소중한 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소위 ‘융합’에 성공한 많은 인재들의 작업도 필히 ‘왜’라는 물음표에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왜’라는 질문이 시작입니다. 그 호기심이 없으면 어떤 사고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저는 잡학의 시대라도 뭘 알아야 융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든지’입니다. 목적을 갖고 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독서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지식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인문이고요.”

이쯤에서 궁금해진다. 과연 21세기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융합형 인재’란 과연 누구를 일컫는가.

“한 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생소한 분야를 다양하게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융합형 인재란, 바꿔 말하면 지식의 형태가 바뀐 것을 의미해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각각은 요구하는 지식이 달랐어요. 농경사회는 농사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이 가장 으뜸이 됐죠. 농사라는 게 공부로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선조들로부터 전수받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산업사회에만 들어서도 공부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커집니다. 제품을 만들고 가공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재료를 효과적으로 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그게 바로 ‘I’ 자형 지식이지요.”

이원복 교수는 ‘I’ 자형 지식과 ‘T’ 자형 지식으로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의 지식형태를 구분 지었다.



03

산업사회는 한 분야를 좁고 깊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I' 자형 지식이 필요했지만, 21세기 정보화사회는 다양한 지식을 접목할 줄 알아야 하므로 'T' 자형 인재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I' 자형 지식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식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죠. 축적한 인류 지식의 양이 해가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공부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식을 조합하고 융합하는 능력이지요.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발명시대에 필요한 능력이었다면, 21세기 지식융합시대에는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어떻게' '영동하게' 조립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융합형 인재가 되는 길

이원복 교수는 인문학의 습득과 다양한 경험이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이근희 대표는 90년대 초, 회사 중역들에게 패션쇼를 가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테크닉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이 경쟁력인 시대죠. 당시 이근희 대표는 '전자쟁이'들에게 컬러감각을 입힌다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는 과연 융합형 인재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까. 이원복 교수는 “사실 해외에서는 융합형 인재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융합교육의 한계는 인공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융합인재를 키우려다보니 뭔가를 계속 강조하죠. 학교교육은

입시에 함몰돼 있고, 대학교에 입학해도 취업문제로 스펙 쌓기에 정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의 경우 어릴 때부터 융합교육을 자연스럽게 접하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라는 이슈에 연연하지 않아요. 청소년들은 오후 2시간 되면 학교 수업 끝내고 운동하러 가는걸요.”

국내에서도 융합인재에 대한 교육이 마라톤처럼 길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연한 이원복 교수는 융합형 인재가 육성돼야만 더욱 거대한 차원의 이야기를 미래사회에서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의력은 선천적이랑기보다 교육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양과 상식이 풍부할수록 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융합형 지식은 일종의 리그(league) 전이예요. 과거에는 토너먼트로 게임이 진행됐다면, 지금은 리그전으로 보다 폭넓게 이뤄지는 거죠. 다양한 것을 조합하고 융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 것 융합인재 육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1세기 지식재산시대에서 융합인재가 갖는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고 강조한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누구도 지식의 융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향해 나아갈 때”라고 언급했다.

융합정보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먼나라 이웃나라>는 올해 스페인 편을 마지막으로 출간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원복 교수는 앞으로 <가르세로 세계사> 집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보다 앞선 나라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를 뒤따라오는 나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작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손에서 펜을 놓지 않겠다는 이원복 교수. 그는 오늘도 잡학(雜學)의 미학(美學)을 손끝에서 그려내고 있다. 발명특허



IP Focus
01

글로벌 특허전쟁시대의 핵심특허 창출 방안





김태수
고려국제특허
법률사무소 변리사

삼성과 애플 간의 세기의 특허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특허전쟁은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의문점을 제기해야 한다. 과연, 글로벌 특허전쟁에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가? 미국 중심의 특허전략이 오히려 글로벌 특허전쟁시대에 우리에게 장애요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허전략이 곧 기업전략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중심의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3국이라고 칭하는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특허출원을 진행한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핵심특허는 미국에는 있지만 제3국에는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심지어는 한국기업의 한국특허마저도 미국특허와 내용이 상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13년 4월 29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술무역을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5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기업들이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원천 특허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한 특허 로열티 지급(27억 달러 적자)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 기업이 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른바 핵심특허 또는 개량특허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핵심특허 또는 개량특허는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의 핵심특허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매입과 제품개발을 통한 특허출원으로 확보된다.

대기업의 경우, 보유 특허의 제품 적용률이 15%를 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사례 중심의 지식 재산경영 매뉴얼 특허경영, 특허청, 2010년).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핵심특허의 확보는 특허경영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는 특허수지를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국 외 특허출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특허에서의
보정 및 계속출원 내용을
미국 외 특허출원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세계 특허는 없다

특허의 매입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제품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발명의 특허화는 해외 특허출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중 미국 특허출원의 중요성은 이제까지 강조되어 왔기에 더 이상의 전략이 없을 것만 같이 보일 정도이다. 미국 외 특허출원은 어떠한가? 많은 논의는 이루어졌겠지만, 그 중요성이 선언적으로 주장되었을 뿐 실제적인 실행전략이 없다. 미국 소비시장 중심에서, 중국 등의 신흥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대에 이제부터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특허 선점은 요원해 보인다.

미국 외 특허출원 전략은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을까? 먼저, 미국 중심의 특허등록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특허경영을 실행하는 기업은 미국출원을 하고 특허의 중요성을 따진 후, 특허청구범위의 보정 및 계속출원(continuing application)을 진행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이 이러한 전략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한국기업은 이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이런 전략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보정 또는 계속출원(CA, CIP, DA)을 진행하지만 미국 외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렇다고, 미국 외 특허출원을 무조건 포기하는 경우도 적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핵심특허로 창출될 수 있는 미국 외 특허출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미국 외 특허출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특허에서의 보정 및 계속출원 내용을 미국 외 특허출원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및 유럽 특허출원이 있을 수 있는데, 유사한 제도 즉, 보정이나 분할출원을 이용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특허제도는 심사청구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 중국, 일본 및 유럽은



심사청구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일본 및 유럽은 심사청구를 추후에 진행하면서 미국에서 심사되는 결과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정하고 주요국의 특허출원을 진행하지만, 정작 미국에서 핵심특허 후보군을 발굴하고도 미국 외 특허출원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은 존재할 수 있다. 특허의 보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특허법에서의 보정시기 및 범위의 제한, 중국 특허법에서의 심사의견통지서 발행 후 보정범위 제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또는 일본 특허법의 Shift amendment 제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분할출원도 동일하게 중국, 일본 등에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레 겁먹지 않고 하나 하나 등록가능여부를 따져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각 주요국에 적합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미국 특허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서, 각 주요국에 맞는 특허명세서 작성과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각국 대리인의 심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에서 보았듯이 소송결과는 각 나라마다 다르기에, 각 나라의 제도 및 실무에 맞게 특허를 창출하지 않으면 특허등록은 괜한 비용만 소모할 뿐 기업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국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고 한국에 특허출원한 후에 영어 번역을 진행한다. 이 영어 번역문을 이용하여 미국, 유럽, 중국에 송부하여 현지의 제도와 실무에 맞는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본특허의 경우는, 한국명세서의 일본 번역문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주요국의 특허명세서가 현지에 적합한 특허발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실무에 맞는 특허명세서가 유럽이나 중국으로 송부되어 불필요한 절차를 극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허출원, “다변화 절실”

앞에서 두 가지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전략은 현재에도 적용가능하며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미국에서의 분쟁만 대비하기보다는 미국 외의 특허분쟁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외 국가에서 특허 경쟁력은 감소하고, 특허 소송이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 외 국가에서 특허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 등 신흥국의 로컬 기업의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전략은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의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있다면, 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현황, 경쟁사의 소비시장, 생산기지 등을 고려하여 현지에 맞는 특허 창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한국 출원 후 우선권 기간 내에 주요국의 특허명세서를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

글로벌 특허전쟁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도 특허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기술 관점의 특허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분쟁지역 관점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특허의 확보는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강력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발명특허

IP Focus
02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 그 새로운 가치와 유의점

중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민인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과 중국의 감독, 배우, 스태프, 자본, 기술이 결합돼 만들어진 한-중 합작 영화 ‘이별계약 (A Wedding Invitation, 2013)’이 지난 4월 12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개봉 4일 만에 7066위안(한화 약 128억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영화는 개봉 첫날 1600만 위안(한화 약 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중국 역대 로맨틱 코미디 최고 흥행작인 ‘실연 33일(개봉 첫날 1500만 위안)’의 스코어를 넘어섰다. 이로써 이별계약은 제작비 3000만 위안(한화 약 55억 원)을 이틀 만에 가볍게 회수하는 기염을 토했다.”

-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13억 중국 영화시장 ‘진출 본격화’

최근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던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 시도 및 그 성공사례에 대한 기사이다. 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래 한국 영화는 종전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전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방식을 보면, 완성작을 중국 현지로 수출하는 단계(1단계), 국내 배우나 스태프 등 제작진이 중국 영화의 제작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단계(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 현지 합작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도모하는 단계(직접 투자 및 기타 감독이나 스태프 등 국내 제작진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영화제작을 주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화에 대한 지분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단계, 3단계)로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 및 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중국 영화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및 방대한 규모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전국 스크린 수는 13,118개에 달하고 있는데 2002년 당시에는 1845개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만에 6배 이상 스크린 개수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화라는 상품이 관객들과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이고도 중요한 창구인 스크린 개수에 있어서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토대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는 총 893편에 달하며, 관객 동원 수는 4.71억 명, 전국 영화 총 박스오피스는 170.73억 위안(=2013. 5. 15.자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한화로 약 3조 1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06년경 중국의 박스오피스 규모가 26.2억 위안(한화 약 4,750억 원)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중국 영화시장은 겨우 6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6-7배 규모로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규모 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영화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 영화의 경우 2012년도를 기준으로 스크린 개수는 2,081개, 매출액은 약 1조 4,551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그 자체 규모로만 보면 상당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시장과 비교하면 박스오피스 규모에서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영화가 2006년도에 1,880개의 스크린에서 약 9,257억 원의 박스오피스 수입을 올렸음을 감안할 때 그 성장세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 영화시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출처 : 한국 영화 35호, 2012년 한국 영화 결산 기사 참조).



한국 영화산업계는 이러한 중국 영화의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종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자본과 실질적인 합작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합작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중국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해당 영화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국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의 차이점이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 확보 및 활용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간단하게 중국 저작권법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이나 특수성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영화 산업에 진출함에 있어 유의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산업의 중국진출, 저작권이 핵심

중국에서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되어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같은 해 '저작권법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가 시행되면서 저작권 관련 법률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26일에 제2차 수정된 저작권법이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중국 저작권법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규정하여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저작재산권의 종류로 복제권, 발행권, 대여권, 전람권, 공연권, 방송권, 정보통신망전송권, 방영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저작권법상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하는 촬영권 개편권 번역권 편집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서는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인 발표권을 비롯하여 서명권, 작품완전성보호권 및 작품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인 수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연자 및 녹음, 녹화 제작자(한국의 음반제작자에 해당) 및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바, 다른 저작인접권자들에 대한 보호는 한국저작권법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한국 저작권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에게도 신분 표명과 그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와 합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될 경우 적용이 될 수 있는 영화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도 중국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법의 해석으로는 영화제작자(영상제작자)가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해당 영화(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보통 영상이나 음의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감독 및 각 촬영, 미술, 편집 감독 등)가 저작자가 되고 영화제작자는 단지 이로부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인데 반해, 중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화저작물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저작권법에 의할 경우 영화제작자는 단순히 해당 영화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에 더해 저작인격권까지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별계약'은 CJ그룹이 기획하고, 한국과 중국의 인력·자본·기술이 결합해 만든 오기완 감독의 한-중 합작 영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문화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가시적인 협력 성공사례로 '이별 계약'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중국저작권법에 따르면라도 각색·연출·촬영·작사·작곡 등을 작성한 저작자는 서명권을 향유하며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영화에 사용된 저작물 중 대본·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다. 또한 실연자의 권리가 한국에 비해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방식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점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화 제작에 관계된 자들로부터 향후 영화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약 등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이다. 현재와 같이 중국기업과 합작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해당 기업은 일반적으로는 완성된 영화의 공동저작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국 저작권법도 그러하지만 중국 저작권법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고 규정하면서(중국 저작권법 제13조 참조), 만약 이러한 공동저작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협상을 통해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실시조례 제9조 참조),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한국기업 독자적으로 해당 영화를 상영하거나 배급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기업이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중국 및 해외배급 기타 해당 영화를 이용한 수익창출을 하고자 한다면 합작 파트너인 중국기업으로부터 (당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영화에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기타 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사용허락 내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국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법과 달리 이러한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허락과 관련해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계약에는 양도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명칭 및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나 양도되는 지역범위 등 일정한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합작을 통해 완성된 영화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중국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을 준수하여 관련 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권리의 양도 및 사용허락 기타 동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관련 문서에 막연히 포괄적으로 권리를 양도받는다거나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놓았을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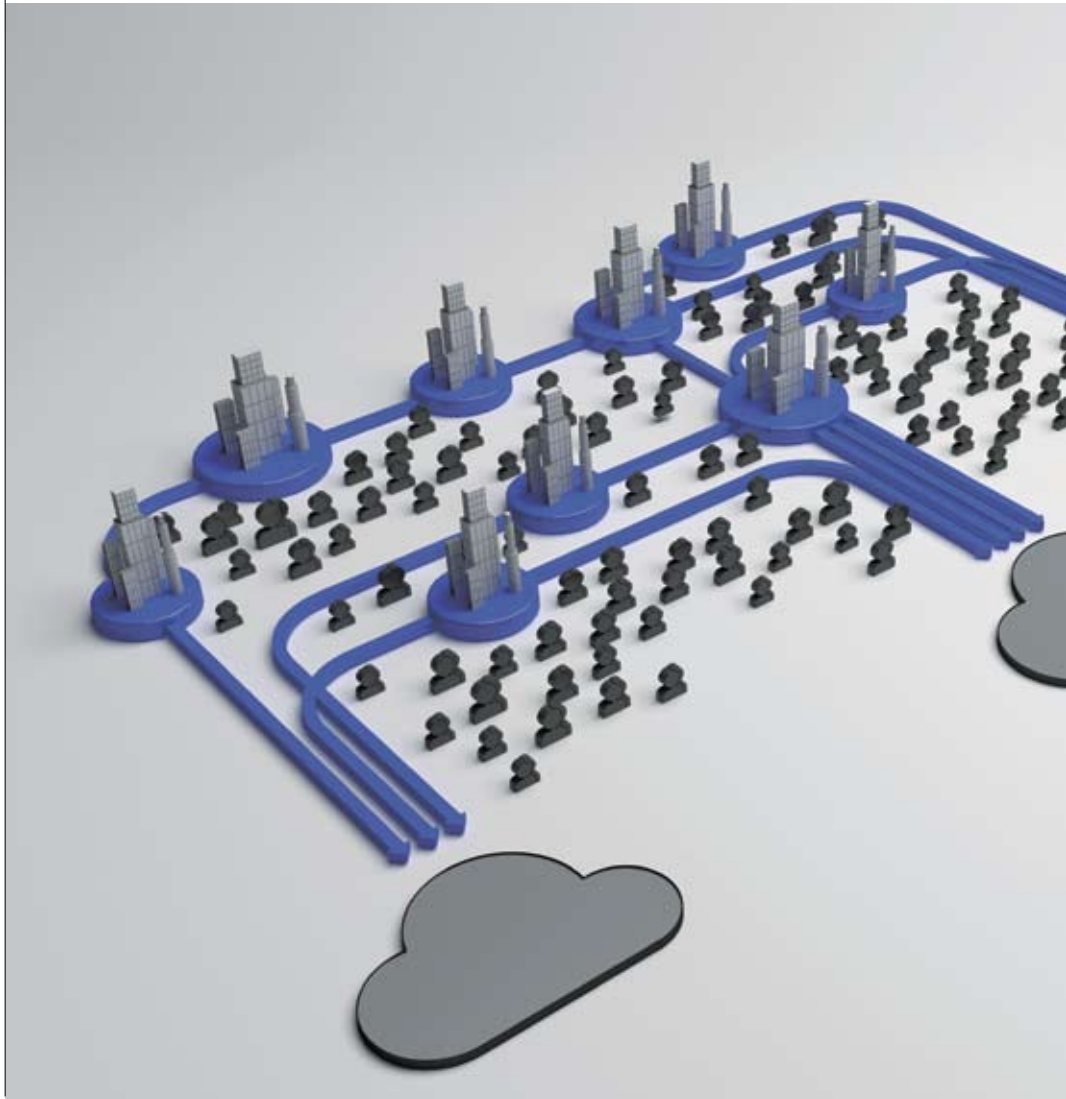
철저한 준비가 성공 열쇠

중국 영화시장을 대상으로 최근 시도되고 있는 위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도전은 새로운 해외시장을 창출하고 개척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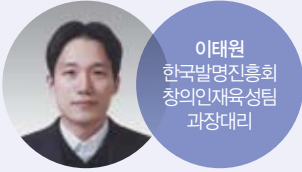
다만, 새로운 시장에서 생소한 법 제도 및 관행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시장에서 제2, 제3의 이별계약과 같은 성공 사례가 잇따라기를 기대해 본다. 발명특허

IP Focus
03

항상 새로워지는 창조 조직을 위한 지식재산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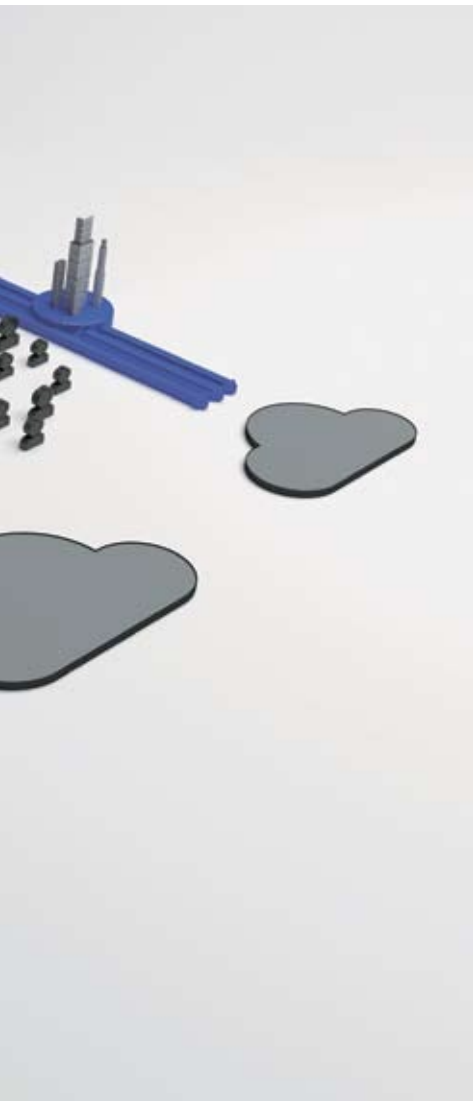


「창조하는 조직을 위한 지식재산 레시피(저자 : 이태원), 발췌·요약



이태원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과장대리

창조적인 조직에는 그들만의 마인드와 정체성이 있다. 지식재산을 경영의 하나로 볼 줄 아는 눈과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제품 내지 서비스, 그리고 내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통의 기술과 학습 조직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잘 버무려졌을 때, 제대로 된 창조기업으로서의 맛을 낸다고 볼 수 있다.



‘권리’로서의 지식재산권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흔히 ‘지식재산(IP)’이란 말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권리로서의 지식재산이 아니라면, 관리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현을 굳이 지식재산권 혹은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지식재산이 권리라는 측면은 항상 상기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권리에 기반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매매 계약이 되었든 실시권 계약이 되었든 계약의 대상은 권리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권리는 특허법과 민법, 헌법이라는 재산권을 규율하는 법률로 보장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확고하게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이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심지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규율하는 기준이 달라서 권리화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권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경영의 도구로서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지식재산이 곧 기업 경쟁력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인식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재산에 대한 CEO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기업은 어느 부문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기 때문에, CEO가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지식재산이 중심이 된 경영을 구축할 수 없다.

소니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본의 대기업 가운데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가장 약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캐논은 가장 강력한 지식재산 마인드를 갖추고, 조직의 구조 역시 지식재산의 창출 - 활용 - 보호를 축으로 구축되었다. 그 결과 캐논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데 비해, 소니는 삼성에게 추월당하고 해외에서 영입한 CEO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의 관계를 통해, 가장 창의적인 기업과 가장 역동적인 기업은 결국 지식재산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특허를 통해 다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티브 잡스가 촉발한 특허소송전은 그의 후임자인 팀 쿡을 통해 한층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구글을 비롯한 수많은 IT기업들이 특허의 중요성을 경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결국 CEO의 마인드가 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 교육프로그램 '엘 시스템아'는 문화예술교육으로 개인과 공동체, 사회가 변화한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엘 시스템아가 배출한 세계적인 음악가로 LA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벨과 베를린 필하모닉 최연소 더블베이스 연주자 에딕슨 루이즈 등을 꼽을 수 있다.



성장하는 조직의 위기관리 능력

특히, 위기란 것은 우리의 예측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이에 게 위기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기업이 만날 수 있는 위기를 검토해 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명확히 할 때에라야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위기의 관리에는 무엇보다 조직의 유기적인 운영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기업경영은 경영학 교과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만든 아부레우 박사는 음악가이자 교육자이고 정치가이며 학자다. 그가 베네수엘라의 어린 청소년들의 손에서 폭력과 총을 놓게 하고 바이올린과 트롬본을 쥐어 주면서 베네수엘라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와 앙숙인 미국조차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조직인 '엘 시스템아' 운동에 대해서는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단지 빈민층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희망을 주었다는 감동 스토리 정도로 엘 시스템아를 느끼고 지나간다면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성장하는 사람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온 아부레우 박사의 경영론을 알차게 배울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악기 다루는 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고 협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악기에 재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악기를 만드는 법이나 행정, 교육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심지어 엘 시스템아에 속하지 않았던 이들을 영입하여, 행정요원과 홍보요원으로 키워내기까지 한다. 모든 것이 사람과 성장에 맞춰져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성공하는 조직의 기본기는 바로 이런 것이다.

엘 시스템아가 조성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도 한국판 엘 시스템아를 실현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성공은 한 나라를 음악의 나라로 만든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영향을 끼친 데에 더 큰 성공 포인트가 있다.

문화에 집중해야 한다. 기아 자동차의 약진을 비롯해서, 개인 통신기기의 변혁을 가져온 애플의 아이폰 등은 제품 자체의 매력을 넘어 문화를 형성하는 힘을 발휘해 왔다. 스타벅과 레이저라는 제품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휴대전화 시장의 주도권을 놓친 모토로라를 생각하면, 문화를 형성해 내는 제품의 힘에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기존과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다. 창조적인 조직이 되려한다면 조직의 문화부터 창의적이어야 한다. 기업이 정부기관보다 창의적일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직 문화가 더욱 유연하기 때문이다. 관료화 조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대신 창의성을 희생한다. 기업 역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수 자체를 용납 못하는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관료화된 대기업의 문화는 픽사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다만 자금을 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심지어 중소기업조차 지독하게 관료화된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도 유행을 따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한다. 창조는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탁회의도 견뎌낼 수 없다면 창의와 창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맞춤형 IP전략

성장하는 조직이란 항상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조직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조직이 성장과 창조를 해낸다. 배움과 학습은 모든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지만, 학습을 바라보는 눈은 저마다 다르다. 막연히 리더십 교육이니 프로젝트 운영 과정이니 하는 것들을 반복해 봐도 성과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흔히 경험한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그때그때 유행 따라 인문학강좌도 열어보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학습 시스템이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일본의 선도 기업들은 경영과 지재와 기술을 갖춘 '삼위일체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다. 20~30년을 넘게 고도로 전문화된 역량을 가진 지재부원이 있는가 하면, 경영전략이 기술의 탄생부터 권리화와 활용에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경쟁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의 공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단지 기술력의 우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지식재산 조직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온 데에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그에 필적하는 조직과 학습이 없다면, 일본 기업들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누구보다 조직적으로 노력하는 이들이 아직 기본도 안 된 이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닌가?

기업은 다양한 경영전략들을 필요로 한다. 지식재산의 경영에 있어서도 목표와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앞서 위기관리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테지만, 경쟁기업의 트렌드 변화나 도전에 좌우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새겨야 한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콜라 맛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비교하는 광고를 내보낸 펩시의 전략에 휘둘러, 코카콜라 본연의 맛을 변모시켰을 때 가져온 위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코카콜라 사람들조차 첫 맛에 펩시콜라의 맛에 끌렸다. 하지만, 첫 맛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님을 몰랐다. 뒤늦게 깨닫고 신규 개발한 제품을 접기는 했지만, 시장은 이미 다변화된 후였다.



디자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단지 눈에 보이는 미감을 높이는 것이 디자인이 아니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서의 디자인을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색상이나 단순한 디자인이 제품의 가치나 호감을 높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적인 요소를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분명 디자인의 문제다. 혼다의 혼다 소이치로 사장이 자동차 디자인의 요소요소에 관심을 쏟고, 그가 손을 댔던 1960년대 디자인이 21세기에 새로운 모델로 다시금 제작·판매가 되고 있음은 디자인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더불어 디자인은 기업이 고객에게 신뢰의 요소가 된다. BMW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에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신뢰감을 느낀다.

세계의 IP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들의 활동에 우리가 잠자코 있으면 그저 특허서비스 시장의 소비자만 머물게 될 뿐이다. 기업 활동과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 활동을 효율적이고 글로벌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도 특허의 G5가 되어 활동해야 한다. 최근야 세계 특허장관 회의니 민간 IP5니 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이 특허 5국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유럽이 특허세계에서 잠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특허마인드도 결코 잠들 수 없다.

창조 혹은 창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는 꽤나 다르다. 몇몇의 천재나 CEO가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한 사람의 CEO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게 아닐까? 하지만 창조와 창의를 실제 의미있는 생산과 연결시키는 데에는 조직과 팀이란 바탕이 있어야 한다. 여럿이 한 두명의 리더나 천재를 지원하고 떠받드는 구도가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여 최적의 가치를 형성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창조경제의 핵(核)이 되어야 한다. 발명특허

IP Focus
04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결코 이길 수 없다





허성원
신원국제특허
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은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설파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빠른 용사인 아킬레스가 느림보의 대명사인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니, 제논은 이 역설을 통해 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



제논의 역설 : 경쟁에서 살아남기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간인 아킬레스가 거북이와 달리기 경주를 한다.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10배쯤 빠르다고 하자. 그래서 경주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 거북이의 출발점을 아킬레스의 출발점보다 100m 정도 앞에 둔다.

경주가 시작되었다. 아킬레스는 달려서 거북이의 출발점까지 도달한다. 그 동안 거북이도 달리므로 10m 앞에 가있다. 그러면 아킬레스는 거북이가 앞서 간 10m 거리만큼 달려야 한다. 아킬레스가 10m를 가는 동안 거북이는 또 1m쯤 앞서 가있다. 아킬레스는 또 따라가고, 역시 거북이는 또 얼마만큼 앞서 가있다. 이런 상황은 무한 반복되며 그리하여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의 뒤를 따라가기만 할뿐 결코 이길 수 없다.

실제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말이다. 아킬레스가 농땡이를 부리지 않고 하던 대로만 한다면 당연히 아킬레스가 이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만 보면 매우 그럴듯하다. 그래서 역설(Paradox)이다. 사실 이 역설은 무한등비급수 등의 논리에 의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명제임이 수학자들에 의해 이미 증명되었다.

그럼 이 역설을 주장한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뛰어난 철학자인 제논은 이를 통해 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

원조를 뛰어넘는 창조적 모방

제논은 아킬레스가 오로지 거북이만을 뒤따라가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킬레스는 다른 방향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앞선 경쟁자인 거북이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이 같은 추종 형태에서는 퍼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절대로 앞지를 수 없다. 퍼스트 팔로워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더라도 자신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퍼스트 무버를 추종하기만 해서 그를 결코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 제논의 가르침인 것 같다.

퍼스트 무버는 스스로 자유롭게 트렌드를 설정하고 시장과 패러다임을 창출하며 대중을 인도한다. 심지어는 생태계마저도 자유로이 설계하여 기업의 생멸을 설계하고 통제하고 지배한다. 그러나 퍼스트 팔로워는 퍼스트 무버가 만든 트렌드를 모방하고 그가 창출한 시장의 일부를 뺏거나 나누어가지는데 만족하거나 그것을 목표로 하는 소극적 존재에 불과하다.



Think Different

패스트 팔로워가 퍼스트 무버를 이기는 방법은 퍼스트 무버가 설정한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창조적 혁신을 이루는 길이다. 후발 주자가 취할 수 있는 창조적 혁신은 '아킬레스가 오로지 거북이만을 뒤 따라간다'는 제논의 전제를 뒤집어 보면 된다. 제논의 전제를 뒤집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다른 분야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다른 분야의 도움을 받는 창조적 혁신 방법은 이종업계나 다른 생태계의 지식, 정보, 성공사례, 통찰력 등을 벤치마킹하여 접목하는 것이다. 선발 주자인 퍼스트 무버가 지나간 동종업계의 길을 따르는 것은 모방 혹은 표절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종업계나 타 생태계의 것을 빌려와 적용하는 것은 대체로 창조적 혁신으로 인정된다. 타 분야에서 빌려온 기술로 큰 성공을 거두거나 인류의 삶을 바꾼 기술은 수도 없이 많다. 예를 들면 산우영 가시로부터 얻어온 아이디어로 인류의 필수품이 된 벨크로나 게코 도마뱀을 모방하여 개발된 유리창을 타고오르는 로봇을 보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주인이 되라

창조적 혁신의 두 번째 방법은 선발 주자가 간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선발 주자가 간 길을 따라가면 영원히 그 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추종자의 운명을 벗어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그러나 누구도 퍼스트 무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아직 애플의 매우 뛰어난 추종자에 불과하다. 애플은 누가 뭐래도 혁신적 제품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내놓아 엄청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였고 그 제품들과 관련된 그들만의 거대한 생태계를 창출하였다. 진정한 창조를 이룬 진정한 퍼스트 무버이다. 삼성이 시장에서 아무리 애플을 능가하는 실적을 올리더라도, 삼성은 여전히 애플의 뒤를 이어 동일한 방향으로 추종하여 달리고 있을 뿐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추종자가 아닌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플이 창조한 시장과 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혁신을 보여주거나 전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폰이나 삼성 고유 방식의 혁신적 웨어러블 컴퓨터 혹은 새로운 생태계를 제시하라. 그렇지 않는 한 거북이를 그저 뒤따르는 아킬레스의 운명을 벗을 수 없다.

물론 패스트 팔로워 전략도 많은 장점이 있다. 따라잡아야 할 목표가 명확하고 대부분의 리스크는 앞선 퍼스트 무버에 의해 해소되거나 노출되어 있다. 이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채택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90년대 이후 선진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더 개선된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패스트 팔로워의 안락한 추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논의 역설은 또한, 달리는 두 주체를 제외한 주변 세상이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한다. 아킬레스와 거북이만이 달리는 것이다. 만약 주변 세상이 그들과 함께 달리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인 “겨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은 주인공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라 한다”.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달려야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

지금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붉은 여왕의 나라와 같다.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죽어라 뛰어라 하고, 남을 앞서기 위해서는 달리는 속도를 배가하여야 한다. 이 시대의 아킬레스에게는 거북이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문제이다.

이 시대에는 앞선 자를 추종하는 패스트 팔로워로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제논의 역설은 옳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발명특허



China
중국 국가지식산업권, 지식재산권 능력향상을 통한 노후 산업지역 개선 방향 발표

출처 : www.sipo.gov.cn

지난 6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권(이하 'SIPO')은 지난 3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2013-2022년 전국 노후 산업지역 개선 계획」*에 따라 지식재산권 능력향상을 바탕으로 한 노후 산업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SIPO에 따르면, 각 지역별 노후 산업지역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❶ 동북부 지역 : 중국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동북 3성 지역은 노후 산업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중공업 산업을 기반으로 비교적 최근까지 경제활동이 활발했다. 동 지역의 기업들은 장비 제조업, 생산 설비 산업, 부품 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화학 부분에 대한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우수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 ❷ 중부 지역 : 안후이, 후난 등 중부 노후 공업지역은 동북 3성을 잇는 제2의 공업도시이며, 주로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이 지역들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❸ 서부 지역 : 간쑤성 등 서부 노후 공업지역은 사막지대로, 최근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 성장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 ❹ 동부 지역 : 중국 동부지역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의 3대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동부지역의 산업지역들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등 고차원적 산업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USA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인간 뇌와 휴대폰 간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출처 : www.ipwatchdog.com

*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중국 각 지역의 노후 산업지역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 「전국 노후 산업지역 개선계획」을 발표하 바 있음. 국무원은 동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노후 산업지역에 축적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동 계획은 노후 산업지역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창출, 운용, 활용 전략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함

** 중국 국무원은 동북지역의 생산 설비 및 기술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동북지역 등 노후 산업기지 진흥 전략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 바 있으며, 국무원은 오는 2013년 10월 「동북지역 진흥 전략계획」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정책 결정 사항 및 지식재산권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경제발전의 의의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지난 5월 27일, 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는 미국특허출원 제20130127708호 「휴대폰 기반의 무선 및 모바일, 뇌-기계 인터페이스(Cell-phone based wireless and mobile brain-machine interface)」를 공개했다.

동 특허출원에 따르면, 해당 발명은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휴대폰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 기술보다 진보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술의 개발에 따라, 앞으로 정상상태시각유발전위(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SSVEP)***에 기초한 BC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체에 착용 가능한 무선뇌파시스템을 휴대전화에 통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게임을 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학, 정신의학, 노인학, 재활의학을 비롯한 임상연구에 있어 생체의학정보모니터링 및 이상신호 감시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 기술을 활용한 휴대폰을 상품화할 경우,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생리학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신호를 감시하여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통신망을 이용해 의료센터에 전송이 가능해질 것이며,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인지상태뿐만 아니라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의료센터에 전송되도록 하는 기술로도 다양하게 응용될 가능성이 높다.

* 캘리포니아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특허등록을 많이 하는 대학교에 속하며 과거 관절염에 대한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 적혈구 세포 입자 제조법, 조직재생법 등 다수의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 바 있음

** BCI 시스템은 인간의 뇌로부터 뇌파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컴퓨터 또는 고급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컴퓨터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명령으로 변하는 기술임

*** 정상상태시각유발전위(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SSVEP)는 6 Hz 이상의 반복률(replication rate)을 가지는 안구의 깜박임과 같은 시각적 자극에 대한 뇌의 전기적 반응을 참조한 기술임



USA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특허주장기업(PAEs)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공시

출처 : www.managingip.com

지난 6월 20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미국 내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이하 'PAEs')**의 공정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 조사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달 초 PAEs에 대한 대응 조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는 미국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FTC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PAEs의 소송 남발로 인해 영세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 경비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PAEs에 의한 특허 침해 소송 건수가 3배로 증가하였으며, 그 활동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그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PAEs의 소송대상은 드롭다운 메뉴(drop-down menus) 등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 발표

출처 : www.kantei.go.jp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을 이용하는 온라인 소매업자, WiFi 등을 제공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등과 같은 '오프라인 소규모 영세업자'이며, 이들로부터 특허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의 특허침해소송 위협 또는 실제 소송 제기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 1914년 설립된 **美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소비자 보호와 경제 전 분야에서의 경쟁과 독과점 문제를 관할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규제기관임

** 특허주장기업은 특허괴물(Patent troll) 또는 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s) 등의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지난 6월 25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을 발표했다. 일본은 2003년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해마다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 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은 「지식재산정책비전」에 따라 결정된 중·단기 시책의 구체적 내용, 소관 부처, 목표 달성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쟁력 강화 · 국제표준화 관련 시책 : 일본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급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 지원을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국제 지식재산제도 간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 정비(직무발명 제도 정비, 심사 기반 정비, 영업비밀 보호 강화, 행정 기능 강화, 국제 표준화 인증의 전략적 대처 강화, 산·학·연 연계 기능 강화 등),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 육성 및 확보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사업 지원 체계의 정비,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의 재검토, 미활용 특허의 활용 촉진,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 기능 강화,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
- ② 콘텐츠 강화 관련 시책 :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세부 시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과학기술 정책, 문화 정책, IT 정책과의 융합을 도모한다.
 -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환경 정비)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 변화 대응, 콘텐츠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정비
 -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의 강화) 일본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발굴, 일본 브랜드의 글로벌화, 전략적 해외 진출 추진,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대응책 마련, 콘텐츠 인재 양성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3.pdf>



유럽 특허청, 특허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에 6개 신규 언어 추가

출처 : www.epo.org

지난 6월 26일, 유럽 특허청(이하 'EPO')은 특허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인 「Patent Translate」*에 6개 유럽 언어(불가리아, 체코, 아이슬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자동 번역 서비스 대상 언어가 추가됨에 따라, 「Patent Translate」를 통해 자동번역 가능한 언어는 총 22개로 늘어났다.

2012년 2월, EPO가 최초로 실시한 「Patent Translate」 서비스는 7개 언어(영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대상으로 했다.

2012년 10월, 7개 언어(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노르웨이어)를



India

인도,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을 위한 개별 수수료 공표

출처 : www.wipo.int

추가적으로 자동 번역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최근 중국어와 일본어 번역 서비스도 개시됐다. 한편, EPO는 2014년까지 EPO의 38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28개 언어와 러시아어를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확대하여 「Patent Translate」의 자동 번역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유럽 발명가 및 기업들이 「Patent Translate」를 통해 언어의 장벽 없이 현행 특허 기술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특허권의 품질이 향상 되고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 번역 서비스는 EPO의 무료 온라인 특허 데이터베이스인 「Espacenet」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고, 「Espacenet」은 이미 전 세계 8,000만 건의 특허문서를 보유하고 있음

지난 6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인도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하여 인도에서의 국제상표 등록·갱신 등을 위한 개별 수수료를 공표했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각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과 관련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보충 수수료 대신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등록·갱신을 위한 인도의 개별 수수료 공표는 2013년 7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수수료(Swiss francs)
국제상표의 출원 및 지정 -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당	61
국제상표의 갱신 -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88

한편, 인도는 지난 4월 8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해 동 의정서의 89번째 당사국으로서 표장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에 90번째로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의정서는 인도에 대해 지난 7월 8일부터 발효됐다.

*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칭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동 시스템에 속한 국가들을 '마드리드 연맹(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한편, 마드리드 시스템은 특허의 PCT와 유사한 국제 상표 등록 체제로, 상표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가 이를 각국의 특허청에 배부·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다

교육기획팀



정보와 지식의 홍수시대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문제를 해결해 가는 힘을 키우는 '창의성 교육'이 각광받는 시대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을 지금 만나 보자.

01. 김운선 팀장 02. 민홍규 계장 · 손승욱 계장 03. 김종현 과장대리 04. 김민우 인턴 · 김현승 계장 05. 안인영 주임 06. 윤용일 계장 07. 김상미 계장 08. 설경범 계장 09. 양진수 과장대리



창조경제 시대, 새로운 미래 인재를 디자인하다

교육기획팀은 지난 2001년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사업을 시작으로 처음 조직됐다. 현재는 '지식재산 이터닝' 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내용과 운영 성과 면에 있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자체 교육사업인 지식재산 연수사업 (IP-Campus)을 병행하면서 타 기관교육과는 차별화된 운영전략으로 지식재산 교육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직 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기획팀의 이러한 위상은 대외적으로도 반영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력·교육분과와 국가지식재산교육발전협의회 간사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식재산 교육정책과 발전방향에 대해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지식재산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운선 팀장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뛰어난 통찰력으로 팀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수장이다. 그는 최근 이슈화된 창조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지식재산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지식재산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는데, 지식재산 교육은 바로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의 가장 근본적인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성장과 산업성장을 이끌어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지식재산 교육수요 누계가 향후 5년간 93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발명진흥회의 IP교육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는 창의 교육

자원이 부족하여 부가가치 사업으로 나라의 경제력을 올려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창의 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주입식 교육을 줄이고, 창의적인 교육 방침을 더욱 깊이 논의해 보아야 할 때다. 이에 교육기획팀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62만 4천명의 회원과 230만 명의 수강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온라인 IP교육 사이트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IP Academy, IP Teacher, KIPO Academy, IP Schoo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이러닝 사업 파트너로 열정을 가진 김종현 과장대리는 "본 이러닝 사업을 위해 교과정 운영, 시스템, 콘텐츠 개발 등의 파트로 나누어 양질의 교육 운영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 스토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현재 시대에 맞는 오픈형 교육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 모든 것이 이야기고, 콘텐츠다'라고 주장하는 김남지 계장은 IP 스토리센터 파트너를 맡고 있다. 그녀는 "2012년부터 '지식재산 스토리센터'를 런칭, 지식재산 분야의 핫 이슈를 스토리텔링의 감성으로 녹여낸 짧은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식재산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스토리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창의력과 열정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었다"며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은 지식재산계 TED형 라이브 강의로 올해에는 좀 더 新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자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협력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고 전했다. IP Campus는 한국발명진흥회 자체 사업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IP교육을 오프라인으로 교육함으로써 각 기업의 Needs에 맞추어 IP교육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IP Campus 파트너인 윤용일 계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교육은 지식재산 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획팀은 한국발명진흥회 내에서도 가장 젊은 팀에 속한다. 이들은 젊음을 무기로 항상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이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답'이 아닌 '길'을 제시하다

"위대한 상사는 마음에 불을 붙여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팀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팀장으로서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팀워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교육기획팀은 팀원들의 자기개발과 친목 도모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매주 금요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최신 이슈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팀원끼리의 의견공유와 업무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것이다. 또한 친목도모를 위하여 2달에 한번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있으며 프로야구 관람, 볼링, 영화관람 등 다양한 단합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식구가 3명이나 늘어났다. 젊고 패기가 넘치는 만큼, 교육기획팀은 더욱더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IP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성과가 바로 지식재산스토리센터와 지식재산스토리페스티벌이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01.이은총 주임 02.나문용 전문위원 03.이동준 주임 04.전효원 주임 05.김소연 사원 06.김남지 계장



청소년 교육의 전문가인 양진수 과장대리는 “2012년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2013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 박람회에 참여했고,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하여 뽀로로를 통한 국제적 IP교육과 워크북 제작, ODA 사업 등을 진행, 글로벌 IP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WIPO 한국신탁기금(KTF : Korea Trust Fund)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을 위한 발명교재 개발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 교육 분야에 있어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첫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좁은 국토에 부존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 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1발명’ 시대를 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교육 기획팀. 앞으로도 지식재산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발명특어

미르기술은 지난 10여 년간 검사 자동화 설비를 생산하는 검사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이제는 이 분야 세계 최고를 노리는 강소기업이 됐다.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검사기 전문 기술 연구소는 물론, 세계 각 지역에 11개의 해외 지점 및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여 최상의 고객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실력이 뒷받침 되는 정성'을 철학으로 내세우며, 파죽지세의 기세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미르기술을 지금 만나보자.

(주)미르기술



로컬 시장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정밀성, 편의성, 검출력을 향상시키다

경기 군포 한세대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는 미르기술은 FA(Factory Automation)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모여 설립한 전자부품 검사장비 전문 업체다.

미르기술의 검사장비는 전자부품 조립과 생산 과정에서 부품이 제대로 결합됐는지를 순식간에 점검한다. 휴대폰이나 TV, 자동차의 전장품, 항공기의 전자장치도 이들 장비에 의해 점검이 이뤄진다. 검사가 제대로 안 되면 자동차나 항공기는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전자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공정이다.

미르기술은 2D, 3D 비전검사를 통한 반도체 검사장비, SMT(표면실장기술), LED 장비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SMT AOI(표면실장기술 자동광학검사장비), SPI(인쇄검사기), LED 패키지 검사기, LED 조명 검사기, 메모리 모듈 검사기, 통합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했으며 머신비전, 각종 장비의 동작제어, 통신, User InterFace 등과 각종 생산 장비에 대한 Web Based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FA시장에 공급해 오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초고해상도 컬러 카메라가 장착된 인라인 AOI(자동광학검사장비)를 출시하며, 세계시장에 진출했다. 그로 인해 2010년 당 산업에서 일본과 이스라엘, 미국 등의 경쟁 회사를 제치고 세계 최상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박찬화 대표는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PRG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해 ‘SMT AOI’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다”고 말하며, “이 장비의 연간 세계시장 규모는 5000억 원 정도인데 이 중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미르기술의 제품 라인업은 2D/3D AOI, 3D SPI, LED Package 검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D/3D AOI는 세계 최초 2,500만 화소 카메라와 3D 기술을 접목 시킨 비전 검사기로서 2D, 3D검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부품의 실장 및 납량의 불량 부품을 검출할 수 있다. 3D SPI는 PCB기판에 납도포 이후 패드의 납량 상태를 3D로 측정하여 불량을 검출하는 장비이다. LED Package 검사기는 LED 생산 고객에게 특화된 검사기로서 LED 생산 공정에 따라, LED 내부의 빛을 전달해 주는 중요 부위인 Die&Wire 및 형광체의 높이를 3D로 측정하여 불량을 검출하는 장비이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세계최고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미르기술은, 이제 선두권을 지키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특허’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신사업진출과 맞물려 종합적인 특허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던 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IP활용전략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미르기술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매주 회의 및 수시로 비정기적인 미팅시간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그로 인해 기존 사업영역과 신사업영역의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부터 특허조직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자문, 종합적인 특허경영전략의 완성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01. 미르기술 안성공장 전경. 우수한 기술과 전문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르기술. 고객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02. 미르기술은 세계 각 지역에 11개 해외지점 및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60 여개 영업망을 통하여 최상의 고객지원 시스템을 갖추었다.

SMT 검사장비 산업은
비전 기술과 초정밀
계측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 · 항공 ·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파생산업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03

“사실 초기에는 성과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특허 프로세스와 경영전략에 대한 결과물, 특허부서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온 하나의 기폭제로써 본 사업의 성과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의 정부지원사업과 달리 한국발명진흥회 PD(Project Director)인 황진원 변리사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컸습니다.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움직여주셨기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르기술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꾸준한 유대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미르기술이 소속된 외부협회와 단체에 사업담당자를 초청, 사업소개 자리를 갖는 등 사업 홍보를 함께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특허관련 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에 자문을 요청드릴 계획” 이라고 했다.

미르기술의 제품 경쟁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2D/3D 외관검사 장비 분야에서 요구되는 빠른 검사 속도와 정확한 검사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요소들은 ①3D 측정 원천 기술, ②머신 비전을 통한 2D 검사 기술, ③실시간 영상 획득 및 처리 기술, ④핸들러 설계 및 제작 기술로 정의 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떤 기술이라도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2D/3D 외관 검사 기술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각 요소 기술들은 특허를 통해 보호 받고 있어 미르기술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분야에 신규 업체가 새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03. 세계 최고속 15 Mega Pixel Top Camera 적용 3D SPI 04. 현재 국내외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221명의 직원 중, 연구개발 인력은 70여명으로 30%가 넘는다. 미르기술은 매년 매출의 10~11%를 연구개발비로 쓴다. 05. 미르기술은 세계적인 권위의 Global Award에서 다수의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 (Circuits Assembly SEA, NPI Awards 총 6회 수상, EM Asia Awards 3회 수상, Global Technology Award 5년 연속 수상 등) 06. 미르기술은 2010년 경기도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일은 힘들어도 보람있고 즐거운 회사를 만드는데 미르기술의 목표다.



04



(위) 미르기술 회의실에는 수많은 상장과 특허증, 수상트로피 등이 2개의 벽면에 가득 차 있다. (아래) 박찬화 대표

표면실장 검사장비 신홍강자로 거듭나다

미르기술이 영위하고 있는 SMT 검사장비 산업은 비전 기술과 초정밀 계측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항공·차세대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파생산업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세계경제 회복과 더불어 I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SMT 검사장비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르기술의 매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외 고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국부창출과 고용창출을 이루는 등 국가산업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미래 잠재력을 고려해 보아도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에서 선정한 핵심육성 분야 중에 특히 당사가 진입하여 있는 3D 계측 산업, LED산업, 차세대 첨단 로봇 산업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IT 제조 산업의 핵심 기반 중의 하나인 정밀 측정 로봇 검사장비 분야에서 원천 기술 개발과 글로벌 IT 신시장 주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르기술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다.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은 물론,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객 대응,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과 현지화 영업전략, 마지막으로 자가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비전검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아낌없는 개발 투자와 마케팅 및 고객의 니즈, 품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미르기술. 글로벌 No.1 기업으로 성장할 이들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발명특허



05



한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늦여름이 찾아오면 으레 들리는 것이 태풍 소식이다.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은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남긴 채 훌쩍 떠나버리고, 남은 숙제는 복구다. 그 과정에서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하는 것이 채 익지 못한 채 우수수 떨어져버린 과실이다. 상품가치가 떨어진 그것을 눈물 흘리며 땅에 묻는 농민의 모습은 차마 보기 힘든 광경이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아니어도 생김이 예쁘지 않아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농작물은 우리에게 언제나 숙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작물에도 새로운 대안이 생겼다. 바로 업사이클링(Upcycling)이다.

Trend Report

FOOD UPCYCLING



소비문화의 뜨거운 화두,
푸드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을 넘어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리사이클링 개념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용품이나 폐물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재활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업(up)된 것이 업사이클링이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기에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제품을 말한다.

스파브랜드의 패스트(fast)패션으로 인해 버려지는 옷들이 남기는 문제점이 상당하고,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농작물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의 창조는 우리 사회에 뜨거운 화두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제품은 아름다운 소비문화를 형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회자된다.

이러한 업사이클링 제품은 비단 식품이나 패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식품, 패션 그리고 가구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업사이클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 쓰임을 다한 재료를 이용하여 그 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업사이클링이다.

못난이 농산물의 새로운 얼굴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약간의 흠집만 있으면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으레 땅에 묻었다. 그 수밖에는 도무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경제침체로 불황이 계속되면서 못난이 농산물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속상품으로 포지셔닝 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고 그것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못난이 농산물은 메리트가 없다. 그러한 실속상품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못난이 농산물이 고부가가치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재료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그 실례가 과일이 과일주가 되거나 과일잼으로 재탄생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농민이 제작·유통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직거래로 이루어져야만 농민은 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농민들에게 미래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가치의 재발견, 또 다른 소비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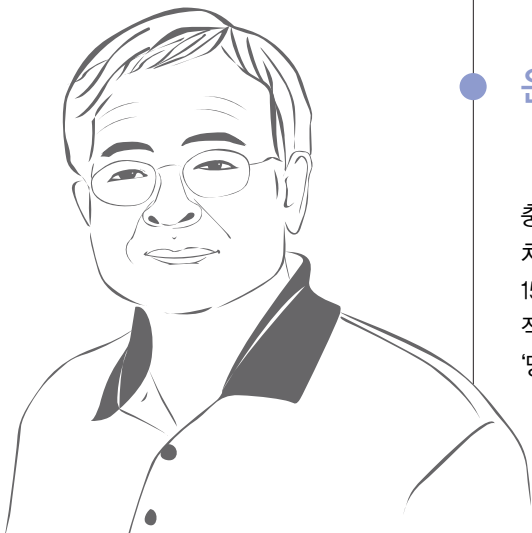


푸드 업사이클링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식품 말고도 업사이클링이 적용된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포크를 이용한 업사이클링이다. 포크는 음식을 먹는 도구 이외의 이용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사이클링이 적용되면 다르다. 집에 안 쓰는 포크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포크 헤드 부분 양 사이드를 구부려서 만든 픽(pick)은 과일이나 핑거푸드와 함께 세팅하면 좋다. 마찬가지로 포크 헤드 부분을 동그랗게 구부리면 반지가 된다. 버려진 현수막이 장바구니로 변신하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지렁이 먹이로 활용하여 지렁이 배설물 비료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다. 이렇듯 업사이클링은 그 한계가 없으며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서 또 다른 소비를 불러, 우리가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발명특허





유의미함에 대한 생각 “모든 것이 특별하다”



윤용길 농부 발명가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윤용길 씨는 ‘농부 발명가’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그는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지난 15년간 영농과 생활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3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그는, 우리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준다.

불편함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발명왕 에디슨 이전에도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22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직접 자본을 끌어들이 전구를 상품화한 사람은 에디슨 뿐이었다. 이는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이다.

발명은 반드시 실용적이어야 한다. 윤용길 씨의 발명도 그렇게 시작됐다.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농사일을 하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필요한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능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개선하여 이것저것 만들다보니, 물건을 연구하고 만드는 일 자체가 즐거워졌습니다.”

그의 발명품 1호는 '자동차 뺑소니 방지장치'이다. 차 고유번호가 새겨진 완두콩만한 플라스틱 볼 20여개가 60kg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반경 15m까지 흩어지도록 고안한 것이다. 13년 전, 친구의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현장에서 물증을 찾고 있는 경찰관을 보고, 그는 “만일 사고 현장에 정확한 정보가 떨어진다면, 뺑소니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5년에 걸친 연구와 실패 끝에 발명에 성공했고 특허를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에 의해 만들게 된 농기구들도 상당하다. 고추를 심기 위한 삼지창 구멍뚫기,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고추 포기물 제초지, 버섯재배용 냉온판, 물이 공급되는 급수 멀칭 비닐, 농약 없이 풀을 죽이는 스팀제초기, 일을 절반으로 줄이는 버섯재배용 직파 멀칭기, 신선도와 맛을 유지시키는 맥반석을 이용한 절임배추, 버섯 수확기 등이 그것이다. 그는 “영농에 꼭 필요한 농기구 가운데 농업인 누구나가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말한다. 특히 스팀 제초기만 하더라도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북 옥천과 영동의 과수 농업인들에게 제품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준 뒤 영농현장에서요기하게 쓰도록 해 농업계에서 미담이 되고 있다.

또 생활 속에서는 얻는 아이디어 응용을 통해 신발 속목이 되는 살균 신발장, 세탁물을 삶을 수 있는 삶는 세탁기, 가정용 냉장고를 이용한 에어컨 겸 냉장고, 작은 틈새의 물을 빨아내는 역분사기, 온 몸을 지압하는 황토 지압 볼, 칫솔대 속에 치약이 들어있는 칫솔 등을 개발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

윤용길 씨는 현재 7개의 특허와 7개의 실용신안 등록, 그리고 6개의 상표를 가지고 있으며, 출원 또는 출원 중인 것이 11개에 이른다. “처음에는 모두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다 보니 땅을 팔아야 되겠다 라고요(웃음). 그래서 특허 출원서 작성 요령을 배웠고, 이제는 제가 직접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 발명가로 입소문이 나면서 그동안 방송과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됐다는 그는 전국 각지에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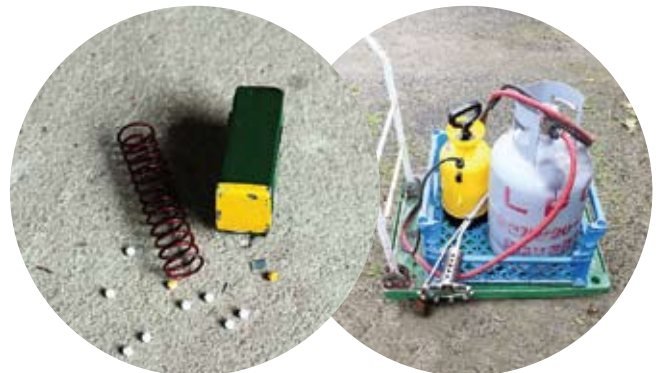
그중 한 학생은 윤 씨의 도움으로 포항공대에 합격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온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에게 발명은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발명의 소재가 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면봉의 크기가 양쪽 다 똑같지요? 이것을 한쪽을 아주 작게 만들어 아기용으로 쓰면 그게 바로 발명품이 됩니다. 이처럼 한 번 더 보고 생각하고, 응용하면 누구나 세상에 없는 발명품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윤용길 씨는 앞으로도 농민이 편리하고, 농민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농기구 발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작은 철물점을 연상시키는 허름한 작업실에서 오늘도 발명을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발명특허



“한 번 더 보고 생각하고, 응용하면 누구나 세상에 없는 발명품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뺑소니 방지장치와 스팀 제초기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 놀이터



서울 시민청

시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곳, 시청. 그만큼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문턱 높고 왠지
가기 꺼려지는 딱딱한 느낌의 공간이었다. 그랬던 시청이 달라졌다. 서울시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생활마당을 마련한 것이다. 이름 하여
'시민청(市民廳)'이다. 시민청이라는 이름에는 '관청 청(廳)' 대신 '들을 청(聽)' 자를 사용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간

시민청 입구에 자리 잡은 빨간색 조형물 하나가 눈에 띈다. 더 많은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활짝 열린 '귀' 모양을 본떠 만든 2.5m 내외 크기의 시민청 상징조형물 '여보세요'이다. 시민들은 이 조형물 안에 설치된 마이크에 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녹음해, 시민청 안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여보세요'에 이어 여러 가지 화려한 조형물들이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풍선과 조기 두름처럼 얽힌 조형물들. 특히 1층부터 7층까지 녹색식물로 조성한 수직정원에 할 말을 잃는다. 그 규모는 무려 약 1600㎡로, 덕분에 건물 안에서도 마치 공원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공기가 상쾌하다.

시민청 지하1층은 비움과 유연성의 공간이다.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며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군기시유적전시실, 시민발언대, 소리갤러리, 뜬구름갤러리, 담벼락미디어,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시민청 갤러리, 시티갤러리, 활짝라운지, 다누리, 톡톡 디자인 가게 등이 있다. 그 이름들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려서인지 참 친숙하고 따뜻하다.

그런 반면 지하2층은 주로 대관공간으로 꾸며졌다. 바스락홀, 이벤트홀, 동그라미방, 워크숍룸, 태평홀 등 5개 공간은 정책 카페, 시민청 아카데미, 연극, 토론, 콘서트, 결혼식 등 다양한 시민참여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하2층은 지하1층에 비해 한산해 보인다.

01. 이경호 작가의 작품 'Dear me'. 우산에는 서울명소의 이미지들이 프린트되어 있다. 02. 한마음 살림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만든 다양한 생활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물건과 노하우를 직접 선보이고 공유하는 새로운 시장이다.



어우러짐이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

시민청 갤러리는 서울과 서울시민의 삶을 테마로 한 다양한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부터는 「한국인의 눈으로 본 캐나다 여행 사진展」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관광청의 ‘끝발원정대’로 선정된 파워 블로거들의 다양한 시선을 담은 다채로운 캐나다 사진을 통해, 캐나다 자연 및 도시의 아름다움은 물론 그들이 캐나다 여행길에 직접 겪은 유쾌한 여행담을 소개한다. 시민청 갤러리는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시회의 구성원이 되어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66개의 모니터가 벽을 이루고 있는 담벼락 미디어는 지하 1층 시민청 한편에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시민들의 삶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시 상영하고, 단체, 개인, 동아리, 기관 등의 다큐멘터리 영상기록을 시민청을 찾아 오는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이다. 인터랙티브 낙서 테이블과 연동해 개개인의 의견들을 미디어월 안의 지정된 모니터에 저장해 소개한다. 그리고 담벼락 미디어 공간에 마련된 도란도란 카페에 앉아 다양한 미디어 감상과 함께 지구마을의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군기시유적전시실’도 특색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 공사 중 발견된 군기시대 군기시설 및 근대 건물지유구를 유적 발굴하여 현장복원하고, 발굴유물을 전시, 시민에게 역사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는 전시공간이다. 문헌에 의하여 표지석만 있었던 시청 자리가 건물지 10기와 호안석축 및 불랑기자포 등 유물 88점과 함께 다시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시민들은 바닥에 깔아놓은 투명한 유리화 중간 중간에 만들어진 이동통로를 따라 걸으며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정당하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지하 1층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시민플라자는 면면이 친숙하고 활기차다. 이곳에서는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한마음 살림장’이 열리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가꾼 물건이 전시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기업들의 공동전시판매장 ‘다누리’ 1호 점과 공정무역제품 판매장인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이다. 다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자는 뜻의 ‘다누리’는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청년창업 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이 모여 만든 통합 브랜드로 유통시장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전시판매장이다. 액세서리, 가방, 수공예품, 주방용품, 화장품, 스마트폰 관련 물품 등 85개 업체 400여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에서는 양질의 공정무역 커피 및 가방, 옷 등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음은 물론,

‘신발 없는 하루’ 부스 운영 및 지구마을 바느질 워크숍 등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이벤트를 상시 개최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을 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상품을 생산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문화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다

지하 1층 태평홀에서는 매주 결혼식이 열린다. 시민청이 결혼식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작지만 뜻 깊은 결혼식 올리기’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 의식 있는 젊은 커플들에게 핫하게 떠오르면서 태평홀의 최근 경쟁률은 2~3대 1이나 된다고 한다.

시민청 결혼식은 1월 12일 제호 커플 탄생 이후 모두 지난 6월까지 총 12커플이 검소하면서도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 5월에는 전통 결혼식의 멋과 의미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첫 한식결혼식이 열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청은 문화공간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도 많이 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정책카페나 사랑방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면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 그 화두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모아진 이야기는 연말에 정책제안서로 발간하고 정책 반영에도 참고하게 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 시민청. 직장인들에게는 휴식 공간으로, 아이들에게는 놀이 공간으로, 그리고 예술가들에게는 작품 공간으로, 서로서로 소통하고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발명특허**



03. 다누리 매장에는 자개로 만든 손거울과 스마트폰 케이스, 천연화장품과 손소독제, 친환경 예코백까지 다양한 제품이 입점해 있다. 04.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대사관과 서울시의 후원으로 시민청 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캐나다 여행사진전. 05. 연중상시 진행되는 활력콘서트는 비록 작은 무대이지만 다양한 공연자들의 활력 넘치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06. 서울과 관련된 역사, 문화, 지리, 정책, 여행 등의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울책방’.



IP + NEWS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발표

● 특허청은 지난 6월 25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종합전략('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품질 지재권으로 개발, 이를 활용하고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지식재산 정책이 지식재산의 창출 확대, 보호 강화, 활용 제고라는 지식재산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있는데 비해, 이번에 마련된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 전략방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국제화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기존의 단편적인 심사 품질 제고 노력에서 벗어나 '출원-심사-등록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품질' 시책으로 방향을 바꿔 'STAR 특허'를 창출할 방침이다. STAR는 우수한 출원(Superior Application), 신속한 심사(Timely Exam), 정확한 심사(Accurate Exam), 신뢰받는 특허(Reliable Patent) 등을 뜻하는 것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강하고 품질 높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개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 개개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별로 심사 시기가 다른 현행 제도를 바꿔 동일 제품군 등에 대한 다수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함께 심사하는 '일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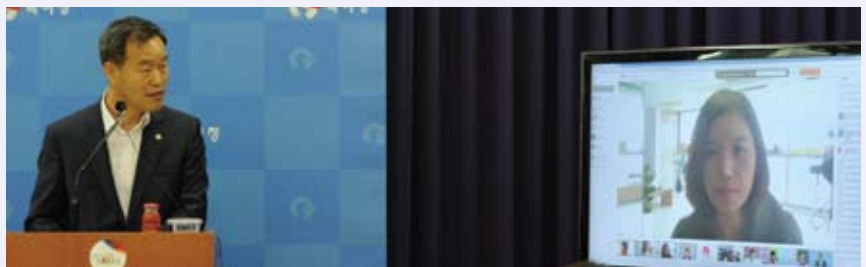
1977년 특허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기술 융복합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로 편제된 특허심사조직을 융복합 심사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권리획득으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도 병행된다. 특허·실용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까지 10개월로 단축하고, 상표는 2017년까지 3개월, 디자인은 2015년까지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지원하는 '국민행복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개발을 정부와 민간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의 전문기업 200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유망 중소기업 1천 500개를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선정,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상호 협력해 기술탈취 방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의무화 추진과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43.8%에 달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비율을 2017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올려 나가는 등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식재산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군 장병에 대한 발명 진흥 및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 인재 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김영민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상표출원도 힐링(Healing)이 대세(大勢)!

힐링(Healing) 관련 상표출원 크게 증가



국유특허, 실시료 부담 없이 활용기회 열린다



● ‘힐링(Healing)’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다. 현재 S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힐링캠프’에도 유명 인사들이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힐링(Healing)이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2008~2012)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을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관련 상표가 76건으로 가장 많고, 가정용품 관련 상표가 2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Theta healing, Honey Honey Healing me 등이 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의료 관련 서비스업이 93건을, 교육관련 서비스업이 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홀리스틱 힐링센터 우리(Holistic healing center We #), 힐링푸드가비아(Healing Food GABIA)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는 일반소비자들의 소득 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현실을 업계에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케팅 업계에서는 ‘힐링(Healing)’과 관련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감성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도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상표2심사와 박은희 과장은 ‘힐링(Healing)’은 마음과 몸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매우 좋은 단어이기는 하나, ‘힐링(Healing)’만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식별력이 있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출원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례 건강기능식품이 주요제품인 중소기업 A는 신제품으로 누에성분이 함유된 혈당강화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허제품이라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고, 시장 반응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특허는 A업체의 특허가 아니다. 국가 명의로 특허를 빌려 쓴 것이다. 실시료를 내야 하지만 A업체는 사업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특허를 사업에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한 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부터 A업체와 같은 중소기업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민간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처분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권리(국유특허권)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기업 중심의 합리적인 정산체계를 마련하고자 先무상실시·後정산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총 3,300여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국유특허를 기업이 먼저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실제 판매 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

종래에는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상판매수량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먼저 납부해야 실시할 수 있었다. 3년 이상 실시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완전 무상실시 대상이다.

이와 같이 처분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국유특허 사용 기회가 확대되어 휴면 중인 특허가 활성화 되고, 실시업체가 실제 판매 수량을 정산하여 실시료를 납부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캠프’ 아무나 못 쓰도록 한다



특허청, 홍보대사 박신혜와 함께하는 ‘짜퉁OUT 정품OK! 청소년 체험학습’ 실시



- 특허청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해병대 캠프 사칭행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병대에서 업무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은 대체로 상표와 유사하나 그 대상이 영리 업무가 아닌 비영리 업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무표장에는 ‘청와대’, ‘kobaco’ 등 공공기관 명칭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등 비영리 민간단체 명칭 및 ‘부산국제영화제’, ‘관동별곡 문화축전’과 같은 지역행사 명칭도 포함된다. 상표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업무표장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

공공기관 등의 표장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아무나 사용한다면 일반인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로 착각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공신력과 이미지를 떨어뜨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업무표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업무표장은 연간 600건 이상이 출원되고 있고, '10년 376건, '11년 454건, '12년 509건으로 매년 등록건수가 증가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이 자신의 업무명칭을 모방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업무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소식을 듣고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캠프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해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업무표장제도는 이와 같은 오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업무표장은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자신을 사칭하는 영업활동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표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특허청은 지난 7월 15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광신중학교에서 특허청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박신혜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정품사용의 중요성과 위조 상품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유해성 등을 알리는 ‘짜퉁OUT 정품OK! 청소년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체험학습은 특허청이 연중 추진하는 ‘위조 상품 유통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실천 및 정품 사용 의식 함양을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체험학습에 위조 상품 유통근절 캠페인 홍보대사인 박신혜가 정품 일일교사로 활동, 학생 170여명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식별요령,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등을 일선 학교 교사가 수업하듯이 자연스럽게 진행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진행된 체험학습은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이론 학습과 위조 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할 수 있는 체험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2월까지 전국 10개 초·중·고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준석 차장은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건전하고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립하여 정품 구매와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보대사 박신혜는 정품 사용 실천을 위한 일일교사 활동을 시작으로 TV공익광고 출연, 소비자 참여행사 참여 등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정품 사용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전력 대체용 더위 쫓는 이색상품 '인기'



발명의 저변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



● 때 이른 더위와 장맛비가 번갈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절전과 더불어 찜통더위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기나 다른 동력 없이 더위를 쫓는 쿨링-매직 상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로 쿨매트, 쿨방석, 쿨의류, 쿨모자, 쿨스카프, 쿨조끼 등 쿨소재를 이용하여 체감온도를 낮추는 제품들이다. 이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제품과 기능을 갖춘 신제품들이 특허출원되는 등 쿨링-매직의 다양한 이색 상품이 줄을 잇고 있다.

열대야 잠자리나 사람이 앉을 때 사용하면 좋은 쿨매트나 쿨방석의 특허출원은 21건 출원되고 있다. 사람의 등, 엉덩이의 열을 쉽게 흡수하는 흡수성 폴리머로 인해 체온을 약 3~5도 정도 낮아지게 하는 쿨제품으로 인기가 많다. 더운 여름철 야외활동, 레저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인기를 끄는 쿨의류나 쿨원단은 쿨소재 가운데 가장 많은 30건이 특허출원되고 있다. 아웃도어 원단에 냉감, 흡수속건 등의 기능성을 더하여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이다.

찜통더위에 쓰면 좋은 쿨모자는 8건 특허출원되고 있고, 목을 시원하게 하는 “쿨머플러”는 7건 특허출원되고 있다. 머리카락, 목에 닿는 밴드부를 쿨소재로 하여 체온을 낮춰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 야외 활동을 할 때 자외선으로부터 팔을 보호해주고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쿨토시, 잠자리에 사용하는 쿨베개, 조끼에 쿨소재를 적용한 쿨조끼 등 다양한 쿨링-매직 상품이 돋보인다.

이처럼 냉감 기능을 갖는 쿨소재는 찜통더위 대비와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고 에너지도 절감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쿨소재의 특허출원은 기업출원비율이 87.5%로 개인(12.5%)보다 훨씬 높다. 서울호 특허청 섬유생활용품과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여러 기능의 쿨링 매직 상품이 특허출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특허청은 발명교사의 저변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교사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발명교사 인증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발명교사 인증제는 2급, 1급, 마스터 등 3개 등급으로 운영되며, 응시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에정자이다.

등급별 응시기준은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뉜다. 필수영역은 발명교육 이수실적과 실무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선택영역은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강의실적 및 발명교육 관련 연구·특허출원 실적 중 2개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검정시험을 통하여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된 교사는 향후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와 전국 4개 교대·사대에 설치된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전문강사로 활용하고, 발명교육 관련 사업의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선정하는 한편, 우수 교사 포상, 교육프로그램 연구 용역 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들과 협력하여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발명교사인증제 시행으로 보다 많은 예비·현직교사들이 발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발명교사로 참여하게 되는 한편, 현재 활동 중인 발명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발명교사 인증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오는 11월에 제1회 발명교사 인증제를 위한 서류 신청접수와 시험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인증교사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KIPA + NEWS

우리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우리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7월 4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조연설로 나선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5개년 종합전략)'을 소개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다른 기조연설자인 스티븐 마이클 교수(미국 일리노이대)는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인 창조 인재 양성과 벤처 창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지식재산 리더 대담'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 분쟁을 담당했던 칼 차네스키 전 ITC판사, Thomson Reuters가 선정한 '12-13년도 지식재산권 분야 'SuperLawyer'로 최근 '미국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외국기업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조나단 밴드 조지타운대 교수 등이 참여해 지식재산과 창조경제에 관한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시했다. 또한 하유미팩 2,000억 원 신화를 달성한 제닉의 유현오 대표, LTE-A 국제표준을 선도한 2013년 발명왕 LG전자 안준기 수석연구원, 상아탑에서 경제력을 창출한 로열티왕 한양대 박재근 교수 등이 참석해 지식재산경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모아진 정책과제들은 미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 정책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미국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열어



- 우리회는 지난 5월 28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미국 지식재산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회 회원사, 기업·대학·변리사 등 특허담당자, 미국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일본 토시코 다케나가 교수의 '미국특허법상 특허보호 범위', 미국 로리시 지식재산의 폴티 마이클슨 변호사의 '미국특허법위 절차의 실제적 측면에서의 청구권 구축', 심영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미국 특허법상의 특허침해, 청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우리회 '지식재산도시, 서울' 만들기에 동참

서울시-지식재산 관련기관 MOU 체결

● 우리회는 지난 5월 20일, 서울시의 '지식재산도시, 서울' 만들기 일환으로 지식재산 관련기관(대한변리사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여성발명협회)과 함께 서울시와 공동협력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회, 서울시 및 5개 기관·단체는 서울시·서울시민·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권리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지원에 협조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마련,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도모, 서울시민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개별 사안별 실무협의를 통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사항을 실천하고 상호협력해 나갈 것을 기약했다.

지식재산 관련기관 대표로 인사를 한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선순환 구축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가 지식재산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창덕 미래창조융합협회장 초청 국정철학 특강 개최



● 우리회는 지난 7월 2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정창덕 미래창조융합협회장(고려대 교수)을 초청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정부 국정철학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정창덕 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강의함으로써 직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창조경제를 '기술과 산업을 융복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제체계'로 정의하면서 경제 관련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핵심개념이라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및 창조자산 보호체계 수립 등의 조건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창조산업밸리조성·창조비즈니스모델 개발센터 구축·창조비즈니스 소셜네트워크 구축·창조자산 관리지원센터 구축 등의 과제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창덕 회장은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관계가 밀접한 만큼 한국발명진흥회가 성공적인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특강을 마쳤다.

“中企 우수 IP사업 성공모델 만들 것”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 우리회는 지난 7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장에서 특허청 이준석 차장, 조은영 부회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나 자금지원 및 유체에 도움을 주는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고, 필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의 특허 활용률은 81.3%로 국내 기업 평균 56.5%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만족도 또한 87.6%로 사업 수행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 사업을 통해 총 35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지식재산을 보증·투자·담보대출 등 금융과 연계하여 지식재산이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이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06년부터 지식재산금융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금융을 바탕으로 IP사업화 성공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회 청렴서약식 가져

● 우리회는 지난 6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부패예방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식은 임원 및 팀장들이 솔선수범해 투명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며, 자율적인 윤리경영 실천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도로 작년에 이어 2회째 추진됐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공공직원의 임직원으로서의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물론, 화합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발명교육
'2013년 창의발명교육
연합학술대회' 개최**

● 우리회는 지난 7월 25일, 특허청과 공동으로 서울 COEX에서 창의발명교육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발명교육의 학술적 인프라 구축과 우수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확산, 그리고 발명교육 관련 유관 연구회와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및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열렸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행복교육의 의미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은 무엇이며, 발명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확산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번 연합학술대회에 참여한 한국기술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실과교육학회, 한국영재학회는 발명교육을 기반으로 각 학회의 특성에 맞는 발명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적용효과 검증, 효과적 발명수업 운영방안 등에 관한 연구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대회 2일차에는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과 유관학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창조경제시대의 창의발명교육 방향과 발명교육의 학술적 기반 조성 및 그 의의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학교교육에서의 발명교육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를 통해 전체 참석자들은 발명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 힐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26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 수상자명단

상격	수상자	수상작
국무총리상	서울 보성고(3년) 임연재	가변 저항식 키보드
WIPO사무총장상	서울 선일여고(1년) 이예림	전원연결장치
조선일보사장상	인천 청량초(6년) 김상윤	다기능 연필심 보호대

● 금상(16명)

상격	지역	학교	학년	성명	수상작
미래부 장관	대구	대구일과학교등학교	1	박준표	휠체어를 탄 장애우를 위한 슬라이딩 여담이문
	대전	남대전고등학교	2	김승원	문단속이 간편한 청문
	경기	인산동산고등학교	3	최대명	편심 구멍을 이용한 하중분산 대형 경첩
	대전	충남여자고등학교	2	오수정	홀로서는 목발
교육부 장관	경남	진해유원고등학교	2	정하빈	적정기술 : Easy Bucket(쉬운 두레박)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	최예지	반짝이 플러그
	광주	광주동신고등학교	3	김대훈	스탬프 기능이 추가된 수정테이프
	인천	인천과학고등학교	2	이은성	세면대 수도꼭지 연결 커뮬러
산업부 장관	대전	대전내동중학교	2	김재범	손목의 회전속도와 팔의 힘을 기르는 운동 · 재활기구
	대전	대전상천중학교	1	박재호	걸이형 버스 손잡이
	인천	선학중학교	2	박찬휘	문이 선반으로 변하거나 사라지는 서랍함
	인천	부원중학교	3	조해강	다기능 와인 병가게
	서울	서울중평초등학교	6	김동건	옆으로 길어져라 교통안전삼각대
	경기	남양주송라초등학교	6	황재훈	공작시간에 사용하기 편리한 끊어쓰는 팔각형 테이프
	전북	삼기초등학교	6	김한지	남은 양을 알리는 음료수병
	경북	안동송현초등학교	3	권주예	사고력 쓱쓱~!! 길찾기 퍼즐놀이

● 은상(40명)

상격	지역	학교	학년	성명	수상작
미래부 장관	인천	서운고등학교	2	윤동혁	뚝뚝 쓱쓱 햄 통조림
	대구	경원고등학교	1	한현동	차량용 히트 청소기
	경기	동탄국제고등학교	1	오승은	깔끔 스파츨라
	서울	서울과학고등학교	2	석민경	사고예방용 안전 이어폰
	충북	충주고등학교	2	서성원	티백 사용 후 깔끔하게 티백을 버릴 수 있는 티백 손잡이
교육부 장관	경남	마산중앙고등학교	2	김보석	트랜스폼 스마트 부채
	경기	한광고등학교	2	문상호	자바라호스 자동세척기
	경북	포항영신고등학교	3	최진성	open 서랍
	경기	효양고등학교	1	이상윤	칸막이가 회전하는 가로세로 조절 책장
	경기	성일고등학교	3	최유현	선형 블록과 회전 점형 블록
산업부 장관	대전	대전전민고등학교	1	육승희	속까지 깨끗한 세면대 파이프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	최 현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보행도움기 겸 안전보드
	인천	선인고등학교	3	오성민	간편컷팅 케이블 타이

산업부 장관	경기	가좌고등학교	3	최민성	다리 장애인을 위한 간편 다리 근력 강화 및 각도 항상 훈련기구
	경기	낙생고등학교	3	채상윤	한 손으로 사용이 가능한 펄프식 액체용기 및 펄핑 디스펜서
	인천	인천청라고등학교	1	한승엽	NFC를 이용한 부재 정보 제공 방법
	대전	서대전고등학교	1	최우혁	계영배코세척기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	이준영	책에 손잡이를 달 수 있는 손잡이만 달린 가방
	서울	보성고등학교	1	양현민	힘이 덜 들어가는 태엽 드라이버
	대전	대전중앙고등학교	2	권경호	절약형 주유기 노즐
특허청장	대전	대전덕명중학교	1	박수현	소리 증폭 핸드폰 고리
	충북	충주북여자중학교	2	김수연	제습제를 이용한 에어컨 가동시간 축소 장치
	서울	아주중학교	1	김용찬	종이컵 전용 받침대
	인천	신송중학교	3	하승진	방문 충돌 및 달힘 방지 2중 방지기
	전남	삼호서중학교	1	최지원	탈착이 편리한 전기플러그와 콘센트
	서울	방산중학교	2	박상빈	날짜기록 집계
	인천	안남중학교	2	백민혁	보드게임 테크리스
	경남	삼정중학교	1	허원준	축각 큐브
	대전	대전삼천중학교	3	이창호	다리미 클리너
	서울	동북초등학교	2	박지민	쉽게 빠는 이쑤시개 통
	인천	인천마장초등학교	3	이연우	원터치 줄 길이조절 패션 줄넘기
	경북	경산중앙초등학교	2	이주연	젓가락 받침대가 있는 컵라면 용기
	경기	운정초등학교	4	이수린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컵
	서울	태강삼육초등학교	5	최호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 뚜껑
	전북	봉동초등학교	6	홍혜리	누르면 나오는 애완 밥그릇
	전남	삼산초등학교	4	이은원	넣었다 뺐다 다용도 열쇠 꾸러미
	경남	반송초등학교	6	장애원	충전식 보드마커 보관대
	경기	남양주백봉초등학교	4	이현지	버터플라이 강당의자
	충북	죽향초등학교	6	박상준	줄자와 함께하는 퀘크 삼각 콘
	경남	금서초등학교	5	배다경	압력차를 이용한 학습용 아날로그 풍향풍속계

● 동상(100명)

상격	지역	학교	학년	성명	수상작
한국 발명 진흥회장	경남	장유고등학교	3	이하영	골드버그 디스플레이 장치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3	진도현	맛바람을 이용한 신기한 환풍기
	경기	경기과학고등학교	2	김상윤	빗면을 이용해 플러그가 쉽게 꽂히도록 도와주는 플러그 커버와 콘센트 커버
	경기	낙생고등학교	1	임나리	눈으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붕괴를 막는 발명품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2	유혜민	깔끔한 찌꺼기 제거 욕조마개
	대구	대건고등학교	1	김진태	오줌 튀김 방지 기능이 구비된 소변기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2	김정용	해파리 퇴치를 위한 황산제이철(Fe2SO4) 자동 배출 부표
	인천	인천과학고등학교	3	전재현	블라인드에 의한 어린이 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절 끈 고안
	대전	대전만년고등학교	3	탁재현	(족부전용)목발(보조)신발
	경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2	박효재	광섬유를 구비하여, 병원용 카메라와 연결가능한 아가진찰용 공갈 젓꼭지
	인천	인천과학고등학교	1	방준용	태양계 천체의 운동모형
	서울	환일고등학교	3	신진욱	한손으로 풀 뚜껑을 열자
	경기	화수고등학교	1	김세진	물의 높이가 일정한 물통
	서울	보성고등학교	1	김찬수	집게목발
	경기	경안고등학교	1	성수민	문어발 펌프
	경남	창원과학고등학교	2	김태수	수면방지 장치가 설치된 침대

한국 발명 진흥회장	인천	인천고등학교	3	김선욱	원격으로 개폐가 가능한 홈 도어락
	서울	환일고등학교	3	주수현	문턱 넘기 편한 이동식 받침대
	경기	덕계고등학교	1	양지나	실용적인 책상(Practical Desk)
	서울	우신고등학교	3	이민준	각이 세워지는 돗자리
국립 과천 과학관장	경기	경기북과학교등학교	1	김영범	스마트폰 LED플래시를 간이조명으로 바꾸는 액세서리
	경기	흥덕고등학교	2	김해림	스마트폰 보호 날개(스마트폰 보호 케이스)
	서울	장훈고등학교	2	장동영	여드름제거장치
	대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3	정유진	한결같은 열기구 바스켓
	경기	효양고등학교	1	윤창욱	과일 과즙 걱정 끝! 과즙이 손에 묻지 않는 포크
	인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2	윤소희	어린이감지 안전버스
	대전	충남여자고등학교	1	김희정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대! 홍미유발 신개념 성장 저금통
	경기	낙생고등학교	2	송인영	미닫이 여닫이 복합 창문
	경기	불곡고등학교	2	허진연	베개 방수커버
	경기	광동고등학교	3	송한영	미끄럼 예방 계단
대한 상공 회의소장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	홍석영	내 맘대로 클리어 화일
	서울	삼송고등학교	1	박지은	Don't worry rainy day
	경북	동지고등학교	3	김완재	L형 밀대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2	이종혁	걱정 NO 돌돌 감는 블라인드 체인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2	강수빈	쓰레기통 조립체
	경기	경기북과학교등학교	1	유재나	업핑
	서울	개포고등학교	3	서입경	손잡이가 시건장치가 되는 휠체어
	대구	대구일과학교등학교	1	이종준	떨어지지 않는 나사와 드라이버
	경기	함현고등학교	1	이창민	EPM(Easy Paper Machine)
전국 경제인 연합회장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	박효범	물고기를 이해하는 판타스틱 어항
	경북	후포고등학교	2	박주은	BD
	경기	효양고등학교	2	조희원	돌돌이 건조기
	서울	신림고등학교	3	추승정	뒤집게
	경북	포항영신고등학교	2	황준혁	특별편리 옷걸이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	조현서	자전거 체인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장치의 발명
	경기	안화고등학교	2	이규석	비닐하우스 빔 차단식 보강장치
	경북	포항장성고등학교	3	박한솔	내 마음대로 경사각 부여 책상
	서울	배재고등학교	2	박현용	노약자를 위한 계단 오르기 용 지팡이
	충남	충남과학교등학교	1	우권식	hand-safe scalpel? 안전한 해부용 칼
한국 무역 협회장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3	박진	휴대용 손잡이(부제 : 후르츠 핸들)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2	이진석	젓가락 정돈박스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	권서원	홍수로 인한 지하철 침수 방지턱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2	김현정	유아용 식탁의자 오람
	서울	환일고등학교	3	조광우	압전 소자를 이용한 청각장애인 사고 방지 시스템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	김재민	A4 홀림방지 벨트 L자 홀더(자화일)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3	김시몬	피스톤펌프를 이용한 노약자를 위한 기차 수납공간
	충남	논산대건고등학교	2	허찬호	자동 기 개방장치
	경기	운암고등학교	3	조창훈	가변식 대류 실험기
	경기	성일고등학교	3	이경진	열쇠 외부를 통해 현관문의 잠금 여부를 알 수 있는 열쇠
중소기업 중앙회장	대전	유성여자고등학교	1	조연재	언제나 탈부착이 편리한 휠체어 보조 장치
	대전	대전문정중학교	2	김연준	재활용 청소세제가 모아지는 비누받침대
	대구	대구동중학교	2	허찬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플립커버
경기	낙원중학교	1	박재균	동물 보호색의 원리를 이용한 오답노트	

상격	지역	학교	학년	성명	수상작
중소기업 중앙회장	인천	인천해송중학교	3	김경호	다용도 소형 전원장치
	대전	대전관저중학교	3	유종훈	전기가 저절로 차단되는 휴대전화 충전기
	서울	서일중학교	2	이지원	전기가 필요 없는 천연색소 LED 간판
	인천	연수중학교	1	이윤식	깔대기형 연필꽂이
	대구	대구동중학교	3	조현진	막히지 않는 헬리콥터 본드
	경기	분당새별중학교	1	배진석	이동이 편리한 지평이 보연대
	대전	대전외삼중학교	3	김민채	잡기 쉬운 팔레트
대한 변리사 회장	대구	오성중학교	3	황동규	한방울도 튀지 않는 남성용소변기
	서울	신천중학교	1	박재모	빨랫대를 의자로! 트랜스포밍
	인천	인천해송중학교	1	김준하	변좌 분할 가열
	대구	고산중학교	3	주민지	바람인형의 흔들림을 응용한 비닐하우스 재설장치
	경기	나곡중학교	2	김소진	외풍차단기능과 스마트폰 거치기능을 가진 다용도 베개 커버
	인천	산곡남중학교	3	노현수	타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자동차
	대전	대전매봉중학교	2	송주희	모양 변형 솔
	서울	문창중학교	3	박유민	오일 스프레드 마개
	전북	고창초등학교	6	노수민	뜨거워도 차가워도 OK 빨대
한국 여성발명 협회장	부산	동래초등학교	6	윤형원	앗 뜨거! 조리기구보호대
	서울	서울대도초등학교	4	김경현	도넛바늘보관함
	경기	남양주신촌초등학교	6	정승훈	가려움 없는 석고붕대
	전남	목포신흥초등학교	5	강민지	편리한 쓰레받이
	서울	영훈초등학교	6	박세인	에너지가 절약되면서 안전한 타이어
	전북	삼기초등학교	6	최성준	편리하게 고구마 순 자르는 장갑
	대전	대전샘모리초등학교	6	노세희	태양광을 이용한 자외선소독 갈뚝이
	경남	장천초등학교	6	차영준	수직개폐와 좌우개폐가 모두 가능한 수평 블라인드
	경기	운정초등학교	2	이현승	다용도 옷걸이
	대전	대전글꽃초등학교	5	김나원	던지는 차량 안전 공
한국 특허 정보원장	서울	서울수암초등학교	6	민지원	역발상 이너(inner)갈꿈이 쓰레기통
	경기	동구초등학교	6	이혜민	책 사이 틈새 제조기
	전남	목포청호초등학교	5	최연우	올리면 나오는 목공품
	경남	장목초등학교	6	김유지	뜨거운 주전자 안전 손잡이
	전북	군산미장초등학교	3	정다현	글루건 안전 덮개
	충북	각리초등학교	6	장지환	들지 않고 기울여 넣을 수 있는 용기
	서울	동북초등학교	5	조민지	내 맘대로 훌라후프
	전북	봉동초등학교	4	김희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눈금이 있는 도마
	전남	광양중진초등학교	2	임효주	예쁜 손수건이 달린 티셔츠
	경기	범계초등학교	4	김초현	절단 길이를 단계로 조절 가능한 테이프 절단장치
경기	범계초등학교	4	김초현	옛보기 방지 기능을 구비한 풀더형 디지털도어락	

● 단체상(4단체)

구분	시장종류	단체명
학교	특허청장상	삼일공업고등학교
		대전 문화여자중학교
		대구 북구초등학교
교육청	특허청장상	경상남도 교육청

* 출품작 수 및 입상작 수를 고려하여 결정

● 제15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수상자 현황(15명)

상격	시상주체	지역	학교	성명	수상작
금상	교육부장관	경기	시흥매화고등학교	임종우	내연기관차량에서 배출된 배기가스의 역류방지장치
은상	산업부장관	경기	이천사동중학교	최용수	반사와 간섭 혼합 방음판
		부산	부산해원학교	김정원	체중에 따른 탄발복원력을 이용한 척추견인장치
동상	특허청장	경기	병점중학교	박종태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핸드드릴 보조기
		경기	저현고등학교	박인규	솔뚜껑을 닮은 전기밥솥
		경남	평산초등학교	진우석	언제나 깨끗히 사용할 수 있는 벤치
		전북	고창남초등학교	노회현	열선의 열로 인한 신장물을 줄여 열선이 잘 끊어지지 않는 열선 커터기
특별상	조선일보사장	경남	고성여자중학교	박태재	불펜형 안전 인두기
		전북	고창남초등학교	노회현	물낭비는 이제 그만! 태엽식 절수 밸브
장려상	한국 발명진흥회장	경북	경산중앙초등학교	서정희	왼손·오른손잡이 겸용 지하철 개찰기
		대구	월배중학교	고영문	안전한 휠체어 손
		전북	고창남초등학교	노회현	건강은 이제 이 손 안에 있다. 건강박수장갑
		전북	군산미장초등학교	박희철	유니버셜조인트식 가로지주를 갖는 신호등
		전북	군산제일고등학교	장주은	몰래 숨어 지켜보는 도둑에게 지문을 남기지 말자
		전북	전주신흥고등학교	정주원	수정펜

KIPA

+ 인사동정

● 2013. 7. 1

성명	직위	발령사항	비고(현직)
민봉기	부장	인재개발연구본부 발명영재교육연구원 팀장에 포함 인재개발연구본부 발명영재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를 명함	사업화지원 팀장
이경표	부장	경영기획본부 기획팀장에 포함	발명영재교육연구원 팀장
김용규	부장	사업지원본부 사업화지원팀장에 포함	기획팀장

● 2013. 7. 16

성명	직위	발령사항	비고(현직)
이민우	과장	인재개발연구본부 발명영재교육연구원 근무를 명함	총무팀
송상엽	과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기간 : 2013. 7. 16 ~ 2014. 7. 15)	지식재산정보팀장
김연민	과장대리	파견복귀를 명함.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팀 근무를 명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주형	과장대리	경영기획본부 기획팀 근무를 명함	지역지식재산팀
서인철	계장	경영기획본부 총무팀 근무를 명함	지역지식재산팀
정진상	계장	사업지원본부 지역지식재산팀 근무를 명함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윤히영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팀 근무를 명함	기획팀
원희재	계장	경영기획본부 기획팀 근무를 명함	지식재산인력양성팀

● 2013. 8. 1

성명	직위	발령사항	비고(현직)
김승보	과장	경영기획본부 지식재산정보팀장 직무대리를 명함	창의인재육성팀

● 신규임용(2013. 7. 1)

이정민	주임(6급)에 임함.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평가거래팀 근무를 명함 (수습기간 : 2013. 7. 1 ~ 2013. 9. 30)	박유미	주임(6급)에 임함. 인재개발연구본부 교육기획팀 근무를 명함 (수습기간 : 2013. 7. 1 ~ 2013. 9. 30)
김주호	주임(6급)에 임함.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평가거래팀 근무를 명함 (수습기간 : 2013. 7. 1 ~ 2013. 9. 30)	박일룡	주임(6급)에 임함. 인재개발연구본부 교육기획팀 근무를 명함 (수습기간 : 2013. 7. 1 ~ 2013. 9. 30)
박준영	주임(6급)에 임함. 사업지원본부 사업화지원팀 근무를 명함 (수습기간 : 2013. 7. 1 ~ 2013. 9. 30)	권용준	주임(6급)에 임함. 경영기획본부 지식재산정보팀 근무를 명함 (수습기간 : 2013. 7. 1 ~ 2013. 9. 30)
명선우	주임(6급)에 임함. 인재개발연구본부 교육기획팀 근무를 명함 (수습기간 : 2013. 7. 1 ~ 2013. 9. 30)	손재희	사원(7급)에 임함. 경영기획본부 지식재산정보팀 근무를 명함 (수습기간 : 2013. 7. 1 ~ 2013.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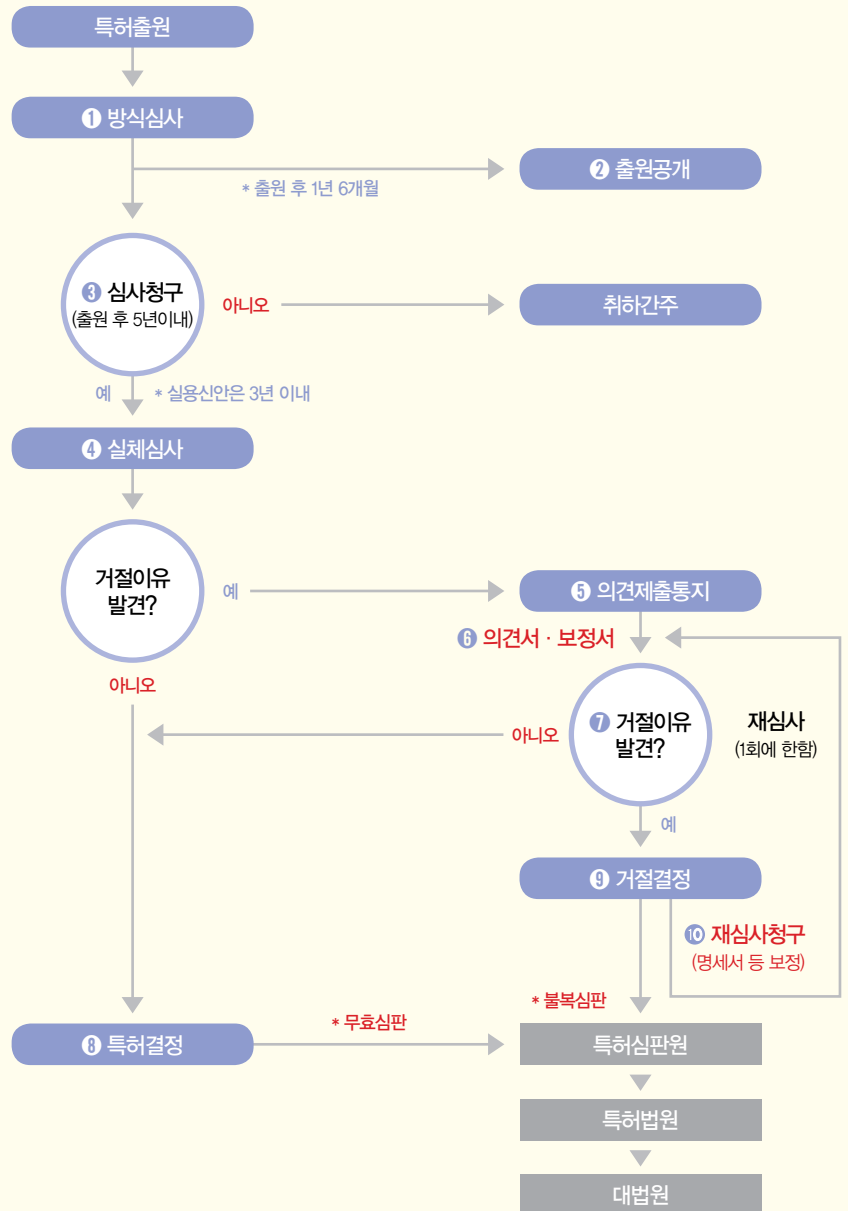
심사 알아보기 I

특허 · 실용신안 심사 절차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이며, 특허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고도성'에서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심사절차도



A

① 방식심사

-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다.

② 출원공개

-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출원을 제외하고 계속 중인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보에 공개된다.

③ 심사청구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심사한다.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심사 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이다.

④ 실체심사

- 출원절차가 특허법 제46조의 방식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⑤ 의견제출통지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의견서/보정서

-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⑦ 심사

-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를 반영하여 거절이유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도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다.

⑧ 특허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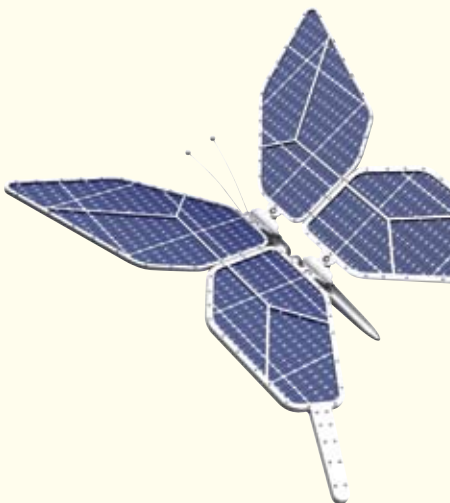
-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한다.

⑨ 거절결정

- 심사관은 의견서 및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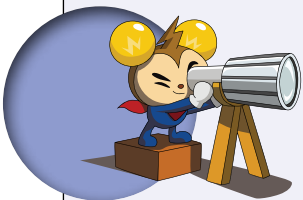
⑩ 보정/재심사청구

-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법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때 까지)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에 따라 다시 거절결정되었거나 거절결정에 관한 불복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재심사 청구에 의한 거절결정은 취소 간주된다.



KIPA QUIZ

Readers Comments



2013년 07+08월호 퀴즈

- Q.** ()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의 전용실시권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통상수입의 약 10%를 주고 나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정부와 민간기업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 Q.** 1975년 베네수엘라 경제학자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설립한 음악 교육 재단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을 실시해 마약,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온 음악교육의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이 재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013년 05+06월호 퀴즈 정답

01. 상표권
02. 창조적 파괴

2013년 05+06월호 퀴즈 당첨자

남선경 sknam****@hanmail.net (경기도 이천시)
이수원 suw****@naver.com (경상남도 양산시)
정복자 bj****@hanmail.net (경상남도 양산시)

조한석 독자 (경기도 의정부시)

〈발명특허〉를 통해 발명과 관련된 각종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 모든 기사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중요한 부분은 스크랩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5+6월호의 〈생활 속 발명이야기〉는 발명의 기본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귀한 기사였다고 봅니다. '발명은 보통사람인 나와는 무관하고, 발명가들만이 행하는 그들만의 것'이라는 편견을 일소하게 하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일상생활에서 출발하는 아이디어가 결국은 좋은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 주변의 불편함 점은 없나하고 메모지를 꺼내 봅니다.

유광렬 독자 (대전시 중구)

'기업가 정신의 부활 없인 한국경제 미래 없다'란 칼럼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세계 1위 인터넷 업체 '구글'과 '페이스북'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바로 열정과 상상력, 그리고 도전정신이 그 정신적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공무원 시험에 너도 나도 몰입하고 있는 것 같고, 벤처 붐은 다소 식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뜻있는 젊은이들, 그들의 자신감 있는 행보를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를 읽고 퀴즈의 정답과 독자의견을 smp@kipa.org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9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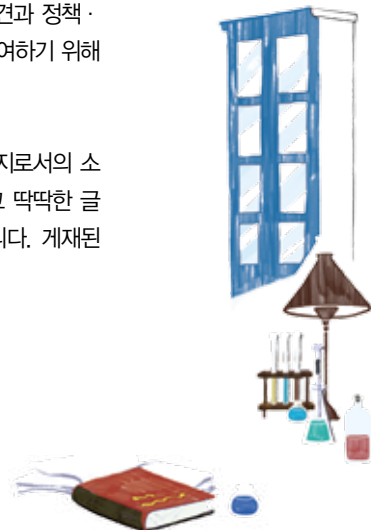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전문정보지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고 투고 및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 게재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 모집 안내

2013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된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의견과 정책·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지식재산 전문정보지입니다.

콘텐츠 중 [IP Focus]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투고를 받고자 합니다. 단, 길고 딱딱한 글이 아닌 신문의 칼럼 형식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 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 원고 주제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 분량 : 원고지 22매~24매(A4용지 10Point, 3매 이내)
- 모집 시기 : 상시 모집
- 보내실 곳(E-mail) : smp@kipa.org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Tel. 02-3459-2727, Fax. 02-3459-2729)

광고가격(2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3	칼라전면	700,000	부가세 별도
내지 화보		500,000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76 아이씨티빌딩 201호	033-264-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2013년도 제11회 발명장학생 선발

● 사업목적

- 우수 발명활동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발명인재의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 신청 대상 및 선발 규모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초·중·고 재학생(초등4학년~고등3학년)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만 10세~18세)에 해당하는 자

구분	대상	비고
초등학교	4~6학년	학교당 5명 내로 학교장 추천(신청)
중·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이 아닌 경우	기 연령에 해당하는 자	자기추천 및 학부모, 지도교원 추천

* 동일 학교급에서 발명장학생으로 기 선발된 학생 신청 불가

- 선발 규모 : 최종 선발인원 100명(지역별 최소 선발인원 : 별도 정원 선발)

● 선발 절차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서류심사	교육실적	교육수료 시간 2점당 1점 온라인 교육은 한 강좌당 3점(최대 2회 인정)	
	대회실적	전국대회, 지역대회 수상 및 참가 실적별 차등	시도교육청 주최대회 인정
	일반가점	사업화실적,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	
	특별가점	사회경제적 배려 계층	1차 서류심사
선발캠프	팀 활동	의사소통, 협동심,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등 - 문제점 도출 과정의 관찰력 표현 - 팀별 문제해결 후 결과물 도출 - 팀별 토론 및 발표	관찰평가
	개별 활동	발명활동의지, IP창출능력 등 -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3분 스피치 - 문제 해결에 관한 집단 토론	자기소개서

* 실적인정기간 : 교육 및 대회실적 부문('11. 9. 1~'13. 8. 3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부문('10. 9. 1~'13. 8. 31)

● 선발 특전(안)

- 발명장학생 증서(특허청장) 및 메달, 해외발명문화체험(11월말~12월초, 3박 4일 예정) 참여
- 사회경제적 배려 계층 장학금 제공
 - 초등 100만원, 중등 150만원, 고등 150만원 장학금 지급

●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13년 8월 중순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홈페이지(추후공지)
- 기타 문의 : 02-3459-2718(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2013년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1. 선발 개요

- 포상명 : 2013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 포상규모 : 7명

구분	인원	상격	상금	선발자격
발명교육확산 분야(4명)	대상	1명	300만원 (소속학교 : 200만원)	교사(수석 교사포함)
발명교육기반 조성 분야(2명)	우수상	5명	200만원	
공로상	1명	특허청장상	200만원	교장·교감

* 대상은 분야별 수상자 6명 중에서 선정

* 교장·교감·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 발명교육확산 분야 : 4명

-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활동 실적 및 성과(발명교실 운영, 대회입상, 연구실적 등)가 우수하고, 발명교육 확산에 공헌한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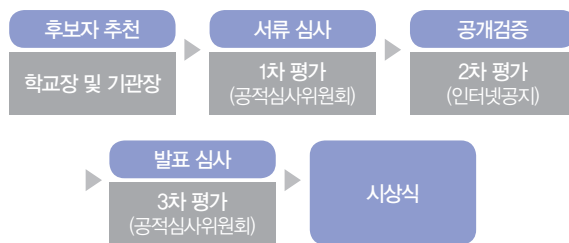
● 발명교육기반조성 분야 : 2명

- 발명교육의 지원이 미비하고, 열악한 환경 등에서 열정적인 자세로 발명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교사

● 공로상 분야 : 1명

- 발명교육 확산을 위해 해당 학교 및 지역, 전국적인 발명교육 및 기반조성을 위해 헌신한 교원

●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서류 심사 - 공개검증 - 발표 심사의 3단계 심사

2. 수상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구분	후보자 추천자격
교사	• 소속 학교장
교장·교감	• 소속 기관장, 발명교육·문화 관련 기관장, 학회 및 단체의 장

● 추천기간 및 제출처

- 추천기간 : 2013. 8. 1(목) ~ 9. 30(월), 마감일 소인 유효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담당자 앞(문의 : 02-3459-2753)

● 추천 제외 대상

● 기 수상자

- 동일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정부포상 수상 후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발명의날,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포함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재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제외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예외)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자격요건 및 대상업적

●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현직 교원으로 발명교육 확산 및 문화조성에 공헌한 자

● 대상업적 : 최근 3년간의 공적(2010. 3. 1 ~ 2013. 2. 28)

- 최근 3년 :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 교육연구기관)의 공적을 모두 포함함

4. 일정(안)

-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2013. 6. 27(목)
- 추천서류접수 : 2013. 8. 1(목) ~ 9. 30(월)
- 1차 심사(서류심사) : 2013. 10. ~
- 2차 심사(공개검증) : 2013. 11. ~
- 3차 심사(면접심사) : 2013. 11. ~
- 시상식(예정) : 2014. 2월 중(2014 발명교육 컨퍼런스)



2013 중소기업 IP리더 4기 교육 모집

1. 교육 목적

-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연결하여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인재 필요
- 기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선도해 나갈 지식 재산 핵심인력(IP리더) 양성

* IP 리더 : R&D 분야에서 팀(그룹)을 대표하여 특허를 전담할 인력으로서 다른 연구원에게 IP지식을 전파하면서 기업의 IP창출을 선도하는 자

2. 교육과정 개요

- 기업, 연구소 e-러닝 특허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기업·연구소 R&D 연구원 및 기술실무자
 - 교육인원 : 총 220명(선착순) 모집인원에 따라 분반배정 (A반 : 기계금속 / B반 : 화학생명 / C반 : 전기전자 / D반 : 정보통신 / E반 : 기타)
 - 교육형태 : 혼합교육(온·오프라인 진행)
 - 신청기간 : 2013년 7월 15일(월)~2013년 8월 14일(수) 선착순 마감
 - 교육기간 : 2013년 8월 19일(월)~2013년 10월 20일(일) 약 2개월
 - 교육비 : 전액무료(오프라인교육 중식 제공)

3. 교육과정 세부내용

-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총2개월의 교육과정 : 기초 1개월 + 심화 1개월
 - 온라인 과정 : <http://leaders.ipacademy.net>(IP리더과정 전용사이트)
 - * 기초 : 3시간, 심화 : 30시간

구분	기초과정(8. 19 ~ 9. 20)	심화과정(9. 21 ~ 10. 20)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입문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 선행기술검색 노하우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 침해 판단과 구범위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특허 명세서 작성 실전! 의견서, 보정서 작성 특허침해 대응방안 연구자를 위한 특허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 오프라인 과정 : 총 1회 실시(분반별 실시 : 전일교육 5시간)
 - 교육장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교육 내용	9. 12(목) 10:00 ~ 16:30	9. 13(금) 10:00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의 이해 특허정보의 의미와 검색 방법 	A반 / B반 / C반	D반 / E반

- 인터넷 방송 : 총2회 실시(통합 실시) 19:30 ~ 21:30(예정) 인터넷방송 진행

* 상기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초과정 9. 16(월)	심화과정 10. 15(화)
A반 / B반 / C반 / D반 / E반	특허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특허 청구범위 분석

* 교육 관련 진행 및 세부안내는 상기 사이트에서 공지예정이며, 세부 커리큘럼, 교육일정, 분반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수료기준

- 기초, 심화과정 온라인교육 진도율 각 70% 이상 수강
- 오프라인 교육 5시간 이수
- 온라인 평가, 과제 및 인터넷 방송 통합평가점수 70점 이상

• 통합평가점수(100점)

기초과정(70점)			심화과정(30점)	
온라인 평가점수	과제 평가점수	인터넷 방송	온라인 평가	인터넷 방송
20점 만점	40점 만점	10점 만점	20점 만점	10점 만점

4. 교육과정 수료시 혜택

- IP 교육지도자 과정 우수 수강생 및 수강 기업에 특전 부여 및 사후관리

5. 교육과정 신청안내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전화 : 02-3459-2765, 2770 팩스 : 02-3459-2789
- 이메일 : leaders@kipa.org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general.ipacademy.net>[공지 사항 참조]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본 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 클럽 지원사업



대학생 등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창업으로 연계해드립니다.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 클럽에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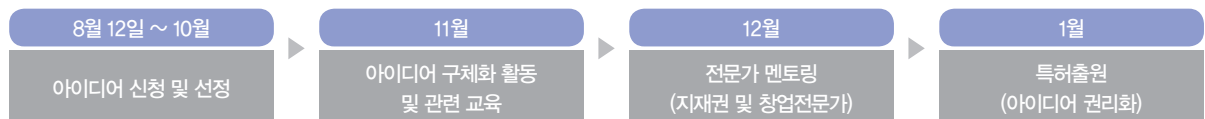
● 신청자격

-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으로 구성된 팀(아이디어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우수 아이디어 특허출원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창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팀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

●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접수기간: 2013. 08. 12(월) 09:00 ~ 09. 30(월) 18:00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ipa.org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무한상상실)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무한상상실 담당자
Tel. 02-3459-2933, 2942 E-mail. ideaclub@kipa.org

※ 본 사업은 2013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미래창조과학부) 및 복권기금(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취업포털

www.ipin.or.kr



지식재산 취업포털

지식재산분야 취업을 위한 정보, 인맥, 기회를 한번에!

지식재산 인재의 경쟁력이 미래를 좌우한다!



ipin

- 지식재산 분야 취업정보
- 지식재산 구직을 희망하는 인재정보
- 지식재산 관련 교육/행사정보
- SNS를 통한 지식재산 정보공유

ipin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하는
SNS기반의 종합취업포털 서비스입니다.

www.ipin.or.kr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2013년 교육일정표

(단위: 원)

지식재산 특별교육(특허청 지원)				
번호	일자	과정명	환급/지원	수강료(회원사)
1	02.15	연구원들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1기	-	각 과정당 18만(15만)
2	03.12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1기		
3	04.16	특허 주요심사기준(화학생명)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교육비 80% 지원	
4	04.23	특허 주요심사기준(전기전자)		
5	05.02	무효심판 대응전략		
6	05.14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기		
7	06.11	특허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small>*변리사 의무연수 6시간 인정</small>	-	
8	07.01	특허침해 감정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		
9	08.27	변호사를 위한 상표소송 실무 <small>*변호사 의무연수 인정 예정</small>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교육비 80% 지원	
10	09.10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11	10.01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12	10.22	연구원들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2기		
13	11.05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2기	추후 공지	
14	11.27~28	특허소송 실무 및 최신 판례 동향 <small>* 변리사 의무연수 인정 예정</small>		
소계		14회		-

(단위: 원)

지식재산 국제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04.20-04.26(5박 7일)	지식재산 실크로드_이스라엘(해외연수)	440만
2	9월 중(8박 10일)	지식재산 실크로드_유럽(해외연수)	630만
소계		2회	-
합계		45회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http://www.ipcampus.net>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자) : 교육비의 약 15% 환급 / 특허청(상호출자제한기업 외 대상) : 교육비의 80% 환급
- 환급 중복 지원 불가, 특허청 지원 대상자 회원사 할인 제외

기업 맞춤형 방문 위탁교육



과정문의 및 연락처

www.ipcampus.net Tel: 02-3459-2767,2781,2762 Fax:02-3459-278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2013년 교육일정표



(단위: 원)

지식재산 일반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환급/지원	수강료(회원사)
지식재산 일반교육				
1	01.23~01.25	지식재산권 기초 1기	노동부 환급 약 15%환급	각 과정당 55만(48만)
2	01.30~02.01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3	02.20~02.22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저작권 1기		
4	02.25~02.27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1기		
5	03.06~03.08	지식재산권 기초 2기		
6	03.13~03.15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		
7	03.20~03.22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1기		
8	03.27~03.29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1기	노동부 환급 약 15%환급 /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80% 지원	
9	04.03~04.05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협상 1기		
10	04.10~04.12	미국특허마스터(출원~소송) 1기		
11	05.08~05.10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저작권 2기		
12	05.22~05.24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13	05.29~05.31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4	06.03~06.05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2기	노동부 환급	
15	06.12~06.14	TLO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		
16	06.19~06.21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2기	노동부 환급 약 15%환급 /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80% 지원	
17	08.21~08.23	지식재산권 기초 4기		
18	08.28~08.30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19	09.04~09.06	중국특허마스터 (출원~소송)		
20	09.11~09.13	강한 디자인·상표 실무		
21	09.25~09.2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22	10.08~10.11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3기 *10.09 한글날 휴무		
23	10.14~10.16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3기		
24	10.16~10.18	특허경영 우수기업 IP전략		
25	10.23~10.25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협상 2기		
26	10.30~11.01	미국특허마스터 (출원~소송) 2기		
27	11.06~11.08	유럽특허마스터 (출원~소송)		
28	11.13~11.15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29	11.20~11.22	지식재산권 기초 5기		
소계		29회		



한국지식재산센터



제1교육장



제2교육장



교육생 휴게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공유

개방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소통

협력



안전행정부
www.gov30.kr



떠 나 세 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 복 속 으 로
당 신 만 의
여름특집이 있습니다

하나, 둘 영차! 영차!
힘든 것도 잊은 채 벌써 세 바퀴째입니다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더위 식히기
춘천 물레길에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여름이 있습니다

|춘천 물레길|

대한민국 구석구석 나만의 여름특집 이벤트

대한민국에는 참 다양한 여행지가 있습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여름을 만들어 보세요

이벤트1. 내가 추천하는 여름 여행지 이벤트2.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름을 찍어라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시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검색해 보세요. (2013.6.20.~8.31.)
summer.visitkorea.or.kr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참여 기관 :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리산관광개발조합,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범정부적인 '국민안전 종합대책' 추진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 4대악 등 분야별 감축목표관리 • 안전문화의 정착



안전행정부





“한 사람 100W 줄이기 꼭 함께 해요!”

모두가 힘을 모으면 올 여름 전력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 닫고 냉방으로 더 시원하게!
절전하는 시원한 가게에서 쇼핑해요



여름철 건강온도 26°C!
시원한 옷차림에 건강온도 지켜주세요



오후 2시~5시에는 절전 실천!
하루 중 전기가 가장 부족한 시간은 오후 2시~5시입니다



안 쓰는 플러그 뽑기는 기본!
플러그 뽑기(대기전력 차단)만으로 6%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한 사람 100W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법

- ① TV 1대 끄기
- ② LED등 2개 갖기
- ③ 에어컨 30분 쉬기

※문열고 냉방, 26°C 온도제한 등의 점검시간은 평일 오후 2시~5시입니다.(주말·공휴일 제외)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터에서 **대**우받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달라집니다! 모두가 일하고 모든 일터가 즐거워지는 대한민국으로-”



-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됩니다.
- 분할 사용 확대 (1회 → 3회),
아동연령 상향 (만6세 → 만9세)
- 어린이집 이용이 수월해 집니다.
- 국공립 · 공공형 · 직장어린이집 확충



- 공공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의무고용
- 스펙보다 능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정착됩니다.



-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17년 30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됩니다.
- 재취업 및 창업안배를 위한 일자리 희망센터가 확대됩니다.



- 공무원 고용 비율과 장애유형별 특화훈련이 확대 됩니다.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친화직종이 매년 5종 이상 개발됩니다.



아이디어는 반짝, 미래경제는 활짝
대한민국 창조경제 소통의 문
창조경제 종합포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창조경제 종합포털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창조경제를 접하고, 자신의 상상력·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공유하는 열린 공간으로, 창업 전주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창조경제 소통의 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Creative Korea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세입확충 50.7조원	세출절감 84.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감면 정비 18.0 · 지하경제 양성화 27.2 · 금융소득 과세강화 2.9 ✓ 세외수입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지출 조정 3.0 ✓ 재량지출 조정 34.8 ✓ 이차보전 전환 5.5 ✓ 국정과제 재투자 40.8

총 134.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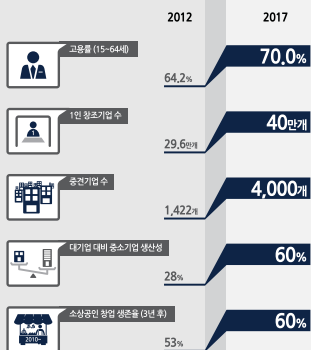
단위:조원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제 부흥

33.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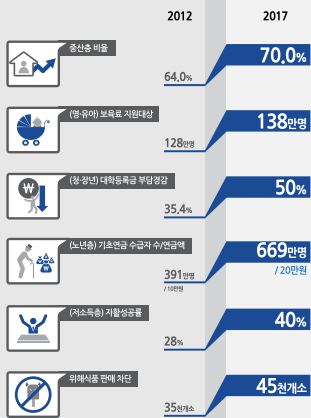
- 창업·중소기업 지원
- 과학기술 역량 강화
- 주거안정대책 강화
- 교육비 부담 경감



국민 행복

79.3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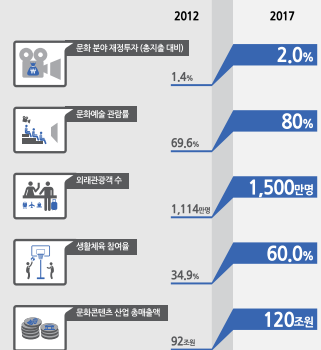
- 저소득층 맞춤형급여
- 노후생활 보장
- 행복한 임신과 출산
-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 민생치안 역량강화
-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문화 육성

6.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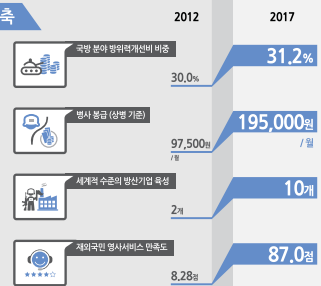
- 문화재정 2%
- 문화격차 해소
- 콘텐츠 산업 육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17.6조원

- 범위역량 강화
- 보람있는 군복무
- ODA 지속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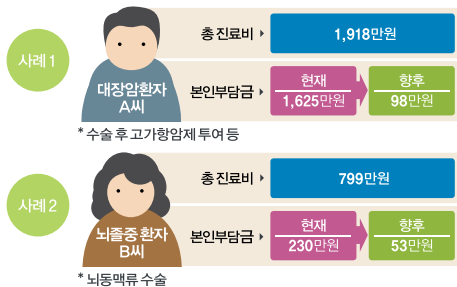


4대 중증질환부터 의료비 걱정,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 꼭 필요한 의료!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크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수술, 의약품, 검사 등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
- 가격이 비싼 최신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일부 비용 지원



▶ 연도별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약품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	
검사 수술	초음파검사 (10월)	영상검사 (MRI 등)	·방사선치료 ·수술 관련 의료행위	·검사(유전자 검사 등) ·교육상담료
치료 재료			·심장·뇌수술 재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 재원은 건강보험 적립금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달
- 건강보험료는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 수준에서 관리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 : 3.04% ('14년 인상률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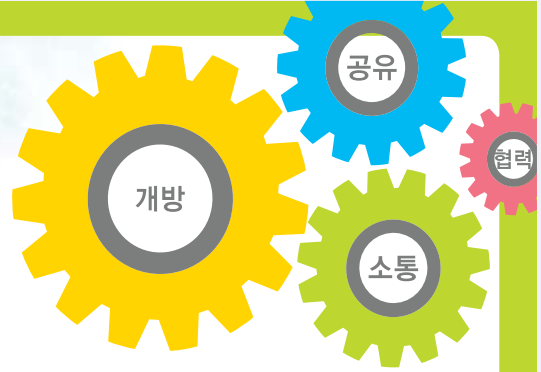
●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4대 중증질환 이외 다른 질환의 건강보험 혜택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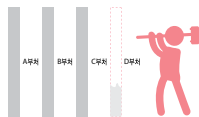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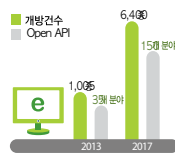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와 여성이 앞에 있어요.
손 안의 전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신고 112 / 여성폭력 상담 1366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 **보고, 듣고, 만나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부터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사전
예방

기업



시설개선, 인력확충
(15년까지 2조8천억원 투자)



**누출탐지·보수
시스템 확대**
(Leak Detection & Repair)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규칙 미준수 징계)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위험 정보제공, 도급계약 개선 등)

정부



**무상 정밀 안전진단,
재정지원, 교육**
(17년까지 87개 노후산단)



지도점검 방식개선
(개별 ⇒ 부처 합동점검)



운송차량 안전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운전자 교육 이수제)



사고 대비체계 확립
(민간 전문가 핫라인 구축,
대응정보 시스템 App 보급)

“맞춤형 화학사고 예방으로 국민안전 확보”

사고
대응



신속한 신고
(신고 채널 일원화,
신고용 App개발)



공동대응 및 협력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방재청, 자치단체 등)



원인자 책임강화
(가해자 배상제도 도입)



사고수습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민관 화학사고 조사위 구성)





쿵쿵쿵!!!
발소리

위층 킹콩 아래층 팬더



내 다크써클...
잠 좀 자자 ㅠ.ㅠ

전체 국민의 65%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00만 가구 시대! 층간소음 문제가 우리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놀이는 밖에서/
뒤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세요



늦은밤 러닝머신, 골프 등
소리 나는 운동은 피해요



TV, 음향기기, 악기의
볼륨을 낮춰요



빨래, 청소, 설거지 등
가사소음을 줄여요



가구 끌기, 땅치질은
자제해주세요



애완동물이 깃차 없게
각별히 신경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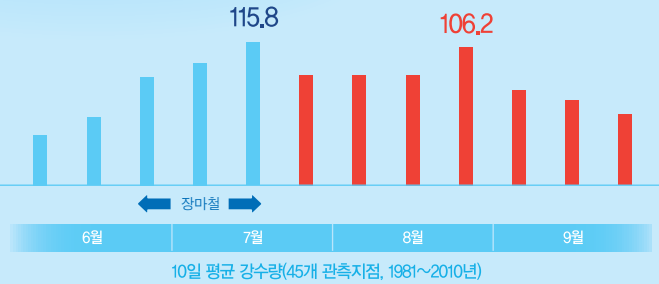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가 끝나고 즐거운 휴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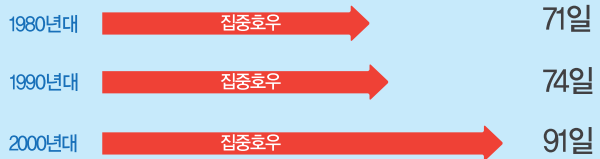
장마 끝? 비 끝?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여름철 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집중호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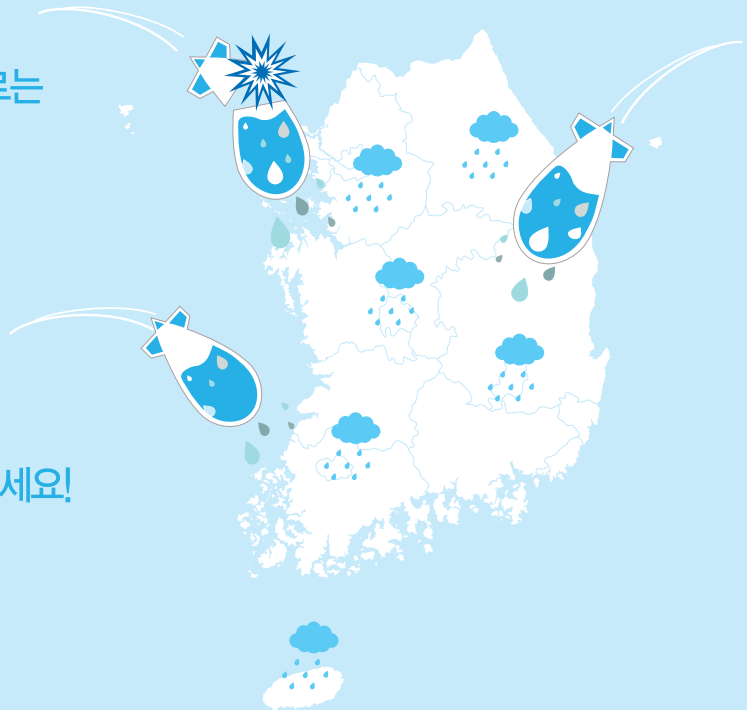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물폭탄 같은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시간당 30mm 이상 강수일수(45개 관측지점, 1981~2010년)

장마 끝~? 방심은 금물!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집중호우,
절대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세요!





자·린·고·비·형 요·금·제

받은 전화가 더 많은데도 기본료에 통화료까지 다 내는 국민들에게 이르노니, 이젠 필요한 만큼 충전하여 알뜰하게 절약하는 **선불요금제**가 딱이라 하노라

선불요금제란?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통화요금을 내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한 만큼 차감해가며 쓰는 요금제도입니다.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고, 충분한 금액 내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paid mobile phone plan

This plan allows you to buy minutes in advance of using your mobile phone. The minutes will be counted out as you use, within the limit of the prepaid amount. There are no up-front subscription fee and minimum monthly fee. You can use your phone within the prepaid limit without worrying about the bill.

선불요금제, 이런 점이 좋습니다

- ①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5천원부터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한 만큼 충전금액이 차감됩니다.
- ② 후불요금제에서 쓰던 휴대전화번호 그대로 선불요금제로 번호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rits of the prepaid plan

- ① You can top up your mobile phone starting from KRW5,000 without any subscription fee and monthly payment. The added funds are counted out as you use your phone.
- ② You can switch to a prepaid plan with the exactly same number you used under a postpaid plan.

선불요금제,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 ① 휴대폰 이용 통화량이 적고(약 68분이하) 길러오는 전화가 더 많은 이용자
- ② 자녀의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으로 요금폭탄이 걱정인 이용자
- ③ 데이터 이용을 주로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로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
- ④ 국내에 단기 체류하면서 이용요금이 저렴한 휴대폰이 필요한 외국인

Prepaid plans are good for the following people

- ① Those who talk less (around 68 mins or less), and receive calls more than make.
- ② Those who are worried about bill shock owing to kids' reckless phone use
- ③ Those who use data mostly on fixed Internet and Wi-Fi
- ④ Foreigners who stay in Korea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look for an inexpensive mobile phone plan.



Idea AUDITION
무한상상 국민창업

상상력이 돈이 되는 - 아이디어 오디션



제품(사업화) 아이디어 등록

- 신청대상 :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 누구나
- 신청분야 : 유형의 제품으로 제작 가능한 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 어플리케이션 등 제외)
- 선정절차 :



- 지원내용 : 배분원칙에 따라 판매되는 수익금을 아이디어 제공자 등에게 지급(홈페이지 참고)

창업 아이디어 등록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제외대상 : 홈페이지 참고)
- 신청분야 : 유형의 제품으로 제작 가능한 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 어플리케이션 등 제외)
- 선정절차 :



- 지원내용 : 우수 창업 아이디어로 선정 시 창업사업화 자금 제공(최대 5천만원)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아이디어 오디션에 접속하여 당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세요.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제품화 전 과정을 대행해주고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드리며, 창업을 희망하시면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로 풀어가는 남북관계, 신뢰로 하나되는 한반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 남북간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겠습니다.
-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습니다.
-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누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제도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오로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하는 변호사입니다.

현재 원스톱지원센터 5곳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110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담합 행위 등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homepage : www.acrc.go.kr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체계 선진화를 통한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 경제 구현

국가 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혁신

- 1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품질 지식재산권으로 창출
- 2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전략 지원
- 3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 창출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및 보호 강화

- 1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형성
- 2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 및 확산
- 3 국내 지재산권 보호 및
법 집행 실효성 제고
- 4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지원 강화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사업화 및 기업육성

- 1 지식재산기반 창조 금융 지원 확대
- 2 IP서비스업 성장기반 마련 및
전문 기업 200개 육성
- 3 IP스타기업 1,500개 육성 등
지식재산 경영 확산

창조경제의 핵심, 지식재산 인재양성

- 1 지식재산 마인드와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
- 2 군장병에 대한 발명 진흥 및
지식재산 교육 적극 추진
- 3 아이디어에서 특허창출·창업까지
지원하는 'IP창조 Zone' 운영